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제는 국민이 대접받는 시대 만들어야”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 마련’ 지시 후 신속한 후속조치

경북도는 24일 예천문화체육센터 내 텐트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 집중호우 이재민 52가구 79명을 경북도립대 신축 기숙사인 미래관으로 이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립대 미래관은 연면적 2,742㎡,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지난해 준공돼 2022년 1학기부터 15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사생실(2인 1실)과 장애우실, 체력단련실, 학습실, 세탁실 등의 공용 공간 등 최고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재민들은 2인 1실로 생활하며 기본적으로 화장실, 냉난방 완비, 개인용침대, 옷장, 책상, 초고속인터넷망이 구비되어 있다.

이외에 이불, 개인생활용품, 자가검사키트, 심리지원키트 등이 제공됐고, 어르신들의 여가시간을 위해 공용공간에 TV를 추가 설치 완료했다. 또 예천군에서는 이재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재민들의 아침식사는 외부 식당에서 배달되며 점심, 저녁은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생 구내식당에서 제공한다. 소요예산은 재호구호기금과 예비비로 우선 집행될 계획이다.

경북도와 예천군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생활편의 지원을 위해 3교대 11명의 인력을 상시 근무토록 함으로써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옮긴 이재민들은 집중호우와

산사태 피해가 컸던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수한리, 천향리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이며,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빠른 시일 내 호텔형 거주시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이철우 도지사는 도청 재해대책 실국장 회의에서 일상적인 생활과 개별적인 숙박이 가능한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경북도립대 기숙사를 임시거주시설로 추진하게 된 배경 또한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시거주시설에 대피한 이재민과 임시 대피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용자원을 동원해 총체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철우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24일 오후 예천문화체육센터에서 경북도립대로 이주하는 현장에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TV 설치 점검, 애로사항 청취 등 이재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나서 해결했다.

경북도립대 기숙사로 이주한 천향리 마을 주민 김00 어르신은 “폭우와 산사태 위험으로 집에 못 들어가고 텐트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깨끗한 방에 머무를 수 있도록 큰 마음을 써 주는 도지사님과 공무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그동안의 피로가



폴리는 것 같다”고 몇 번이나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2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예천에 관측은 숙박시설들은 지금 양공대회 등으로 예약이 다 차 있다. 그래서 찾아보니 작년엔 신축한 경북도립대 기숙사가 있어서 당장 옮겨 모셨다”면서, “이재민들이 여름 텐트 속에 계시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분들의 심정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무한서비스 조직’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국민을 대접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재해는 사전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마음을 헤아려 ‘국민대접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4곳 선정 순천·강진·진도·신안 핵심동력사업에 1천425억 투입

전라남도는 전남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시군 핵심 동력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2023년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4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사업은 순천시의 ‘스마트 생물전환 산업화 플랫폼 111 프로젝트’, 강진군의 ‘천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벌 플랫폼사업’, 진도군의 ‘진경(珍景)-진도산해도경(珍島山海島景) 프로젝트’, 신안군의 ‘인물, 역사, 문화의 하의권(신의-장산) Re-See 프로젝트’다.

2023년부터 3~4년간 1천425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재정 여건과 사업 내용 보완 등으로 진도군과 신안군 사업은 2024년 착수한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은 중앙 공모에만 의존했던 지역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사업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계획서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이뤄졌다. 시군 수요와 지방소멸위기 대응 등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준비 등을 감안해 올해 2년분 4개소를 선정했다.

순천시의 ‘스마트 생물전환 산업화 플랫폼 111 프로젝트’는 도농통합 이후 인구가 급감한 승주읍을 거점으로 새삼살을 활용한 생물전환 소재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원스톱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의 ‘천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벌 플랫폼 사업’은 10년 넘게 방치된 폐교(성화대학) 부지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실감기술) 융복합 플랫폼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도군의 ‘진경(珍景)-진도산해도경

(珍島山海島景) 프로젝트’는 진도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공연장+전시관+미디어 라이브 공연)을 조성하는 등 회동관광지(신비의 바닷길 등)의 노후 관광시설을 새롭게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군의 ‘인물, 역사, 문화의 하의권(신의-장산) Re-See 프로젝트’는 섬지역 문화와 자연 자원을 연계한 관광·문화·편의시설을 구축해 낙후 신안 남부권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인구감소 지역, 발전소외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도내 청년 유입을 위한 신산업 육성,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고른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선정했다”며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획기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일구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삶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서울시설공단 창립40주년 특별 설문조사, ‘숨겨진 명소’ 4곳 전격 공개 시설관리 직원들이 직접 뽑은 시민들이 잘 모르는 유용한 장소 선별해 소개

서울시설공단은 시설관리 직원들이 직접 뽑은 ‘서울의 숨겨진 명소’ 4곳을 21일 전격 공개했다.

공단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중순부터 약 한달 간 공단 임직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공단 시설 중 시민들이 모를 수 있는 꿀 장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서울의 숨겨진 명소’ 4곳을 선정했다.

서울시설공단은 고척스카이돔, 서울월드컵경기장, 청계천 등 문화체육시설들과 추모시설, 자동차전용도로, 지하도상가, 공공자전거 등 서울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이며 1983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공단이다.

‘숨겨진 명소’ 4곳은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서울글로벌센터 유아휴게실,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 서울추모공원 야외정원 및 갤러리다.

우선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은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좌측에 위치했고 최근 리모델링을 마쳤다. 팔각당은 키즈카페, 전망대 휴게공간 등 다양한 시민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지하1층에 위치한 팔각당 전시실은 다양한 작품전시회 및 소규모 연극 등이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팔각당 1층은 카페테리아 공간으로, 사방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대공원의 푸른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2~3층에 위치한 실내놀이터에는 플레이집, 볼볼장, 클라이밍, 낚시놀이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다. 이용 요금도 2시간 기준 어린이 3천원, 어른 1천 5백원으로 저렴하다. 4층에 위치한 전망대에서는 공원과 멀리 광진구 도심의 풍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으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방문 가능하다.

‘서울글로벌 센터 가족 휴게실’은 종각역 6번 출구에 위치한 서울글로벌 센터 1층에 위치한 휴게시설이다. ‘휴게실’과 ‘수유실’이 갖춰졌으며, 기저귀 교환대, 정수기, 전자레인지, 세면대, 냉·난방 설비 등을 비치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및 임산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무더운 여름철 잠시 더위를 피하기에 적합한 도심속 공간으

로 공단은 기존 유휴공간을 사회적 약자 배려 목적으로 올해 초 가족휴게실로 리모델링 했다.

세번째 장소는 소위 ‘물멍’을 할 수 있는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이다.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은 공단이 지난해 자연생태 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친 시설이다. 지난 2008년 설치돼 60~70년대 생활사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물건을 전시해왔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의 자연과 생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투명한 창문과 나무 벤치가 배치돼 청계천이 한눈에 보이고,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연친화적 디자인을 구현했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위치한 도심 화장시설인 서울추모공원에 가면 ‘야외공원 및 갤러리’를 만날 수 있다. ‘야외공원’은 서울추모공원 2층 식당 뒷편으로 가면 만날 수 있다. 다양한 꽃과 나무들로 구성된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청계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볼 수 있다. 1층 갤러리 ‘인연’에는 희망, 위안, 삶에 대한 예찬과 관련된 다양한 미술작품이 전시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밖에 이용 건수가 4000만건(2022년 말 기준)을 돌파하며 서울시민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시민의 발’ 공공전거차량이 흥미로운 추천코스 4곳도 함께 공개했다.

먼저 ‘서울숲 한강 코스’다. 서울숲 남문 버스정류소 옆 대여소(대여소 번호 510번)에서 따릉이를 대여해 한강으로 가는 라이딩 구간으로, 독성한강공원까지는 약 3km 정도 거리가 있다. 이 코스는 따릉이를 타고 넓게 트인 한강을 즐기며, 동시에 서울숲과 독성한강공원이라는 서울의 자연명소를 누린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4대 고궁 코스’로 창경궁과 창덕궁에서 출발해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들려서 경복궁을 거친 후 광화문 방향으로 내려가 덕수궁에서 끝나는 약 4km 정도 구간이다. 창경궁 입구 대여소(대여소 번호 337번)에서 따릉이를 대여해서 출발한 후 4대 고궁을 돌아보고 나서 국립현대미술관 대여소(대여소 번호 331번)에서

반납할 수 있다. 다만, 고궁 내부는 자전거 출입이 금지되어있으므로 고궁을 관람할 때는 인근에 있는 따릉이 대여소에 자전거를 반납해야한다.

세 번째는 ‘중랑천 강길 코스’로 금호나들목 대여소(대여소 번호 3550번)에서 따릉이를 대여해서 가는, 중랑천 용비교에서 상도교까지의 약 21km 구간이다. 이 코스의 장점은 자전거를 타고 중랑천을 달리면서 아름다운 꽃길을 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장미꽃이 아름답게 핀 광진장미정원과 중랑장미공원, 그리고 산책로가 잘 갖추어진 중화수경공원 등을 즐길 수 있다.

네 번째는 ‘안양천 가족정원 장미원 코스’로 안양천 주변의 독산근린공원 입구 대여소(대여소 번호 1824)에서 따릉이를 대여해서 한강까지 약 10km 정도의 코스이다. 이 코스에서는 안양천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따릉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안양천 가족정원에 있는 장미원은 잠시 자전거를 멈추고 예쁜 장미꽃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많은 직원들의 노력과 시민여러분들의 격려로 창립 40주년을 맞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안전과 편의증진을 바탕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단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 여러분께 행복한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시민과의 신뢰와 소통을 확대하고 내부 소속감 고취 및 창의적 문화 조성을 위해 4천여 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숏폼 영상 공모전’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제작된 50여 편의 숏폼 영상을 공단 유튜브 채널 ‘서울시공TV’를 통해 최근 공개한 바 있다.

최광수/기자



Jeonju, Jeonju, Jeonju!

경주 바다 추천 여행지

- 오류고아리해변
- 양남주상절리
- 송대말들대
- 전촌술밭해변
- 물빛 사평길&하서해안공원
- 전촌용굴(사릉굴·단용굴)

볼거리·즐길 거리 가득한 경주 청정바다에서 추억에 남는 여름휴가를!!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읍 경주 이연대 김포읍 전촌용굴(사릉굴·단용굴) 김포읍 김포해국길 김포읍 오류관광정 김포읍 송대말들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읍 전촌항 김포읍 김포공생시장 김포읍 니정고문모래해변 김포읍 전촌술밭해변 김포읍 오류고아리해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무대왕면 코리드 청정누리공원 문무대왕면 전통명주 전시장 문무대왕면 골공사·김은사지 문무대왕면 봉길대왕김해면·문무대왕릉 문무대왕면 한국수력원자력 홍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남면 주상절리 양남면 물빛 사평길 & 하서해안공원 양남면 주상절리 전망대 양남면 관성술밭해면 양남면 습천향 벽화마을 |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1주년, 도민과 현장중심 의정활동 펼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2022년 7월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문화환경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을 필두로 9명의 위원들이 문화·환경·체육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등 2개 실국과 1개 직속기관 및 4개의 사업소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 6개 출자·출연기관을 소관하고 있으며, 경북의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생활체육지원, 환경보전, 산림자원개발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년간 조례안 33건, 예·결산안 18건, 동의안 4

건 등 58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현직확인 등을 통해 도정 전반의 추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경북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경북의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광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육인의 생활안정을 통한 체육활동 증진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문화·관광분야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의 통합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문화환경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사업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회성 행사예산 등 31개 사업에 대해서 53억 9천8백만을 감액했다.

또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6개 사업에 대해서 3억 6천1백만을 감액하는 등 방만한 예산편성을 차단하여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15개 기관에 대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 여부, 업무추진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30건, 건의·촉구 51건, 제도개선 1건 등 총 82건을 지적하는 등 행정 전반을 살피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2022년과 2023년에 시행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에서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의 수익구조가 단편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경북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도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경상북도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장을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로 임용하기 위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은 “지난 1년간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북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북 살리기에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힘써 왔다.”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1년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기도의회-경기연구원 토론회 “신·구도심 상생발전 방안 찾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부위원장 좌장 맡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부위원장이(국민의힘, 안양2) 좌장을 맡은 ‘도시 내 균형발전방안 마련’ 토론회가 21일, 안양시 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도시 내 신·구도심의 상생발전 방안을 찾고자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철현 의원은 최근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심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교육문제’, ‘주거환경문제’, ‘지역간 갈등 문제’ 등 같은 도시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도심 활성화 정책과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토론회를 진행했다.”라고 본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박사는 도시진화와 쇠퇴, 소멸도시, 축소도시 등 도시의 발전단계 과정과 도시쇠퇴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생애주기를 고려한 규모적정화, 입지적정화 전략, 지역관리방법 등을 제안하면서 역세권 중심으로 생활권 구축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공공시설 확충 등 신·구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안양시 사례를 통하여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인 여관현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

과 교수는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안양시 원도심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이유로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진입, 사회구조와 문제, 소득수준, 낮은 경제성장률 등 환경변화에 따라서 불균형 문제가 나타난 점을 언급해주었다.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단위로 ‘새로운 지역관리 도입’, ‘혁신산업육성’, ‘스마트계획 수립’ 등 새로운 도시계획기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완기 안양시 시의원은 안양시 구도심의 어려운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 계획된 다양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시민 체감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재형 JNJ글로벌 홀딩스 대표이사는 30년 정제된 만안구 활성화를 위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 주도에서 국가주도사업 전환을 제안해주었고,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승재 안양시 도시재생과 팀장은 구도심 활성화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재생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해 실무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함께 변화되는 사회환경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도시 내 균형발전과 신·구도심의 상생은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책사업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마무리 발언을 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김병상/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영상산업센터 등 부산의 영화 영상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점검 나서

영상산업센터, 부산후반작업시설, 영화촬영스튜디오 3곳 현장 점검 및 의견 청취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최영진 위원장, 송상조 부위원장, 강철호 의원, 김효정 의원, 박희용 의원, 송현준 의원, 정채숙 의원)는 24일 부산시 영화 영상 산업의 주요 기관인 영상산업센터와 후반작업시설, 영화촬영스튜디오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부산 영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영상산업센터에서 부산영상위원회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입주 제작업체인 케이드래곤 대표와 대화를 통해 부산이 영화축제도시가 아닌 영화산업도시로 발전해야 하며, 제작사, 영화수입사, 마케팅 회사, 굿즈 제작사 등 영화영상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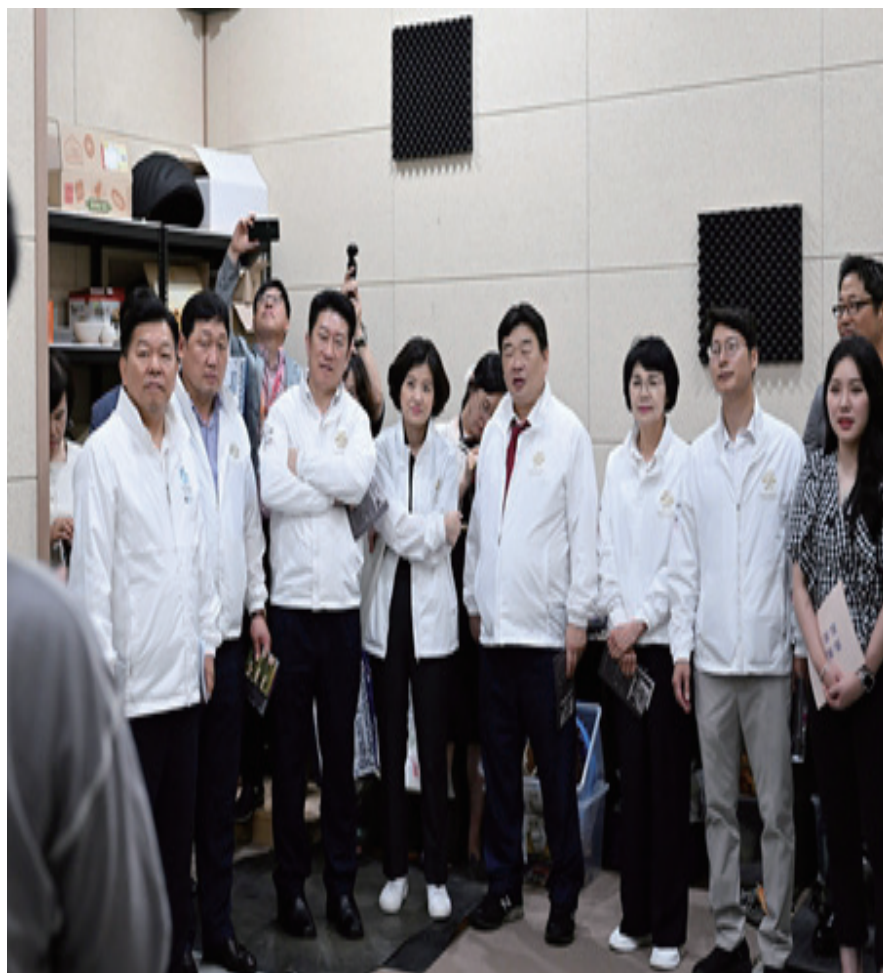
이어서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을 방문하여 색보정 및 사운드 등 후반작업 주요 시설 소말과 함께, 작업방법을 직접 경험해 보고 특히 사운드스테이션에서 아이유노 사운드 디렉터 등 영화 제작 종사자와의 대화 및 체험을 통해 부산의 산업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후반작업 및 영화 촬영을 통한 촬영 종사자들의 부산 지역 체류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부산 영화 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또한 영화촬영스튜디오를 방문하여 현재 촬영을 준비 중인 세팅작업 현장 및 주요 촬영장비 등을 확인하고, 3D 프록션센터를 방문하여 LED VR 다면 영상 제작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고, 향후 부산 영화 영상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대기업 중심의 영상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소비까지 수도권에 집중되어 부산의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며, “특히, 현재 부산의 영화영상산업에 종사자는 전국의 4.8% 수준으로 미미하므로, 기존 인력 양성과 함께 새로운 영화영상분야 기술(CG, 특수장비 활용)관련 교육과 인력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부산에서 야외촬영 후, 스튜디오 촬영, 후반작업까지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함을 공감하고,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송종진/기자



김정희 전남도의원, “기후변화로 산불 빈발...선제적 대응 준비해야”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지난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 전남도 환경산림국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져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와 가뭄 영향으로 올해 6월까지 예년에 비해 산불 발생 건수가 크게 늘었고 피해 면적 역시 마찬가지로”라며 “산불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산불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6건, 2021년 32건에 이어 2022년에는 5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올해 들어 6월까지 총 48건으로 집계됐다.

산림피해 면적은 2021년 18ha에서 지난해 63ha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산불로 약 951ha, 축구장 1,331개 면적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올해 순천 월등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쓰레기를 태우다 불길의 눈독을 지나 산림까지 확산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며 초동대처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이어 “요즘 드론을 이용해 산불을 감시하는데 전문가들은 드론에 소화탄을 탑재해 산불 발생 지점에 터트르면 10분에서 15분가량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며 “산불감시용 드론에 소화탄을 장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안상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 진화헬기 추가 도입을 계획 중이고 소화탄을 장착한 진화용 드론 운용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화탄 장착 드론을 예로 들었는데 앞으로 이상기후로 산불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전남도가 산불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종배/기자



대구시의회, 지치고 힘든 심신 이제 농업으로 치유해 드립니다!

이태손 의원,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성구4)은 제302회 임시회에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우울증 위험군은 3.8%에서 22.8%로 6배 증가했고, 이는 집단 우울증, 무기력증 등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됐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치유농업은 스트레

스 지표 21.7%, 스트레스 호르몬은 28.1% 줄어드는 등의 정신적 건강증진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치유농업은 전통적인 농업 선진국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효과를 인정받아 농업 주요 분야로 자리 잡았고,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대구시에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태손 의원은 지역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 발전을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 단위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치유농업 관련 시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제공 △사업화 및 창업지원 등의 지역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손 의원은 “군위군 편입으로 풍부해진 농촌자원을 기반으로 치유농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행진, 발행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경 제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광 고: 1899.9659 경 계 부: 내선 (114) 오 르 네 지 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키야빌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 무단투기 현장 속으로..

금천구, 무단투기 해소를 위한 '현장구청장의 날' 운영

금천구는 7월 21일 무단투기 해소 및 청소행정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 날'을 운영했다.

구는 주민과 함께 생활 속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찾아가 주민과 대화를 나누며 무단투기 실태와 사례를 파악했다. 직접 종량제 봉투를 파봉해 재활용품 혼합배출 단속에 참여했다. 인근 주민은 "낮에 종량제 봉투가 나오면 지나가던 주민이 검정봉투나 담배꽂초를 버려 무단투기가 심해진다"라고 말했다.

이에 무단투기 해소를 위한 대책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구는 무단투기 CCTV 100대를 설치하고 단속 직원과 실시간 연계해 무단투기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CCTV로 실시간 모니터

링해 무단투기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하면 경고 방송으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한다.

이어 새롭게 도입하는 투명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친환경 노면 청소장비에 대한 주민의 반응과 시연으로 효율성을 확인했다. 주민이 투명페트병·캔 무인회수기를 사용할 때 어려운 점 등 의견을 듣고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청소 장비 현대화와 환경공무원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노면 청소장비를 시연했다. 장비가 무단투기 쓰레기, 선전성 불법 전단지, 빗물받이 사이에 낀 담배꽂초 청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유해업소 불법 전단지는 미관을 해치고, 바닥에 붙은 전단지는 환경공무원이 빗자루로 청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시연에 참여한 환경공무원은 "장비를 운전해 보니 전단지가 잘 빨려 들어가 청소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홍보 캠페인, 단속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말씀

해 주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무단투기 대책 등 청결한 도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성북구, 누구나 더 가깝게 누리는 '권역별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실시

성북구 내 5개 권역에서 펼쳐지는 '권역별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 성북구가 지역 특성에 기반해 다양한 분야에서 권역별로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을 선보인다. 성북문화재단 성북문화도시센터는 지역생활권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권역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역별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은 5개 권역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정릉 권역의 '빈칸을 짓는 시간' ▲길음·종암 권역의 '아빠는 놀이 친구' ▲장위·석관 권역의 '빛나라·빛나는 나의 리듬' ▲월곡 권역의 '천장산어휴학교' ▲성북·동선 권역의 '공간탐험대 탐탐'이 운영된다.

정릉 권역의 '빈칸을 짓는 시간'은 정릉에 거주하는 청장년 및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차와 시를 나누며 각자의 마음속 정적인 공간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나의 삶의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삶 속 빈칸을 짓는다. 참여자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퍼포먼스와 시를 함께 공유한다.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복합문화공간 공백공유와 정릉 거리 일대에서 총 5회에 걸쳐 운영된다.

길음·종암 권역의 '아빠는 놀이 친구'는 15세 미만 어린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아빠와 한 팀이 되어 오감 놀이 및 놀이 운동화에 참여한다. 협력 및 소통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8월 12일과 19일은 서울시청차미디언센터 세미나실에서 오감놀이가 운영되며, 8월 26일은 종암박스파크에서 놀이운동회가 운영된다. 세부 일정은 기수별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하다.

장위·석관 권역의 '빛나라·빛나는 나의 리듬'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없애기 위한 마련한 무용 동작 치유 프로그램이다. 함께 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고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자기 삶의 빛나는 리듬을 다시 찾도록 돕는다. 어르신들에게 예술 참여와 창작 기회를 제공해 사회참여를 끌어내고, 삶의 활력소를 되찾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석관동주민센터에서 운영된다. 월곡 권역의 '천장산어휴학교'는 주민들에게 천장산어휴극장을 활동터와 배움터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생활 예술로서의 연극과 보디퍼커션 등을 배우고 지역의 이야기를 직접 구성하고 풀어내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우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 공연을 만들어 시연하며 일상 속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다. '천장산어휴학교'는 오는 8월 한 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성북·동선 권역의 '공간탐험대 탐탐'은 시각, 촉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고 체험하는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과 포용의 감수성을 길러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복합문화공간 미인도 및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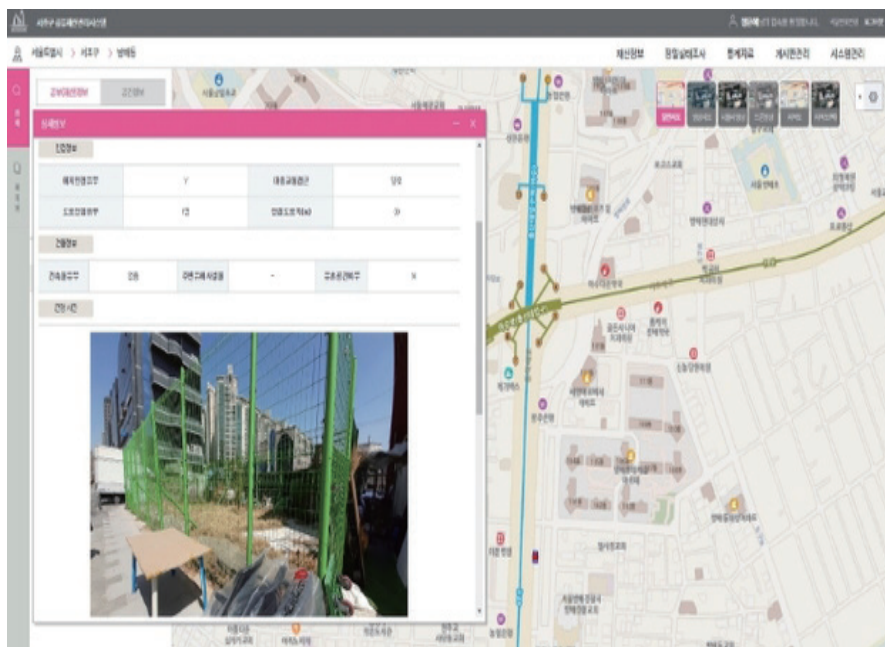
한편, 성북구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성북문화도시센터는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 성북'을 비전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인프라를 강화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강성진/기자



공유재산 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서초구, 서울 자치구 최초 공유재산 원스톱 시스템 구축

필지별 세분화된 항목에 대한 빅데이터 축적과 등급화를 통한 시각화로 자료 활용 증진



스마트 인증도시 서울 서초구가 이번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초구가 디지털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그간 분산됐던 각종 구

유지 정보들을 클라우드 지리정보시스템(GIS)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한데 통합한 것이다.

구청 담당자들은 구유지 지번만 입력하면 드론맵 초정밀 영상과 공유 데이터로 토지·입지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구유지 2,771필지에

대해 시각화·입체화하고, 토지모양, 경사유무, 입지 정보, 현장사진 등에 대해 부서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져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년여간의 용역을 거쳐 지난달에 완성해 20여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5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관리시스템은 크게 ▲필지별 등급화로 구체적 실태조사 자료 활용 ▲드론맵을 통한 정밀 조사 ▲업무시스템의 단일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먼저, 세분화된 항목들을 활용해 필지별 등급을 부여하고, 자료 활용도를 높인다. 구는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국공유지 개발 평가지표인 경사유무, 토지모양, 대지인접유무, 도로 인접유무 등 6개 항목에 기반해 1등급(최상)부터 4등급(최하위)까지 등급화했다. ▲1등급(31~40점) 파란색 ▲2등급(21~30점) 녹색 ▲3등급(11~20점) 노랑색 ▲4등급(0~10점) 빨간색 등으로 시각화해 지도로 표기했다.

또, 드론맵을 통한 초정밀 영상을 통해 가로수 위치, 경계 윤곽, 점유상

태까지 즉시 분별토록 했다. 이로써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 발견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 실제 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드론 영상을 활용해 구유지와 사유지 간 지적선(필지를 구분하는 경계선) 문제를 확인해 해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업무절차를 단일화해 효율을 높인다. 필지 정보가 망라되어 민원 응대가 즉시 가능하다. 기존에 민원 요청시 사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 텍스트 자료 등 여러 절차를 거쳐 확인 후 각 부서 재산관리관에게 연결하는 처리시간 지연을 보완한 것이다.

구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즉각적인 민원처리를 가능케 해 주민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디지털 기술을 구축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하고 투명한 대민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제16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7.29(토)~8.6(일) / 9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온 세상을 물로 적셔라! 장흥에 빠져라!

문화관광축제 VISIT KOREA YEAR 2023-2024

“아파트 부실시공 걱정,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해소해 드립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내실화 및 현장 점검 강화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에 관해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품질점검을 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전에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도는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3차례 추가해 총 4차례 품질점검(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총 2천466개 단지(171만 세대) 현장 점검을 통해 12만 1천255건을 시정조치 했다.

도는 품질점검단 공동연수(워크숍) 등을 통해 최근 건설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내실화 방안을 꾸준히 개발하

고 있다. 특히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및 노조 파업 등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가 제출한 공사 기간 지연 만회 대책을 품질점검단이 점검·자문에 부실시공 예방과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유도하고, 입주 지연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7월부터는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사고의 주요 요인인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대해 시공·품질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주요 구조부 검측 적정 여부 및 콘크리트 강도 확인, 전단 보강 우수 사례 전파 등으로 동일사고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선다.

또한 공동주택 분쟁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성능 바닥 구조 사용 권장 및 시공관리 등에 대

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그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건설업체의 성실 시공을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했다”라며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 공사를 근절하고자 경기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신설한 제도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전반적인 시공상태를 점검해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건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1월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인기 배우 민우혁 市 홍보대사 위촉

2025년까지 활동하며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 높이고 효과적인 시정 홍보 활동

용인특례시가 24일 뮤지컬 배우 겸 인기 배우 민우혁(39세) 씨를 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 위촉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시민이기도 한 민우혁 씨(수지구 거주)에게 직접 시 홍보대사를 맡아줄 것을 제안해 이뤄졌다.

민우혁 씨는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연기로 뮤지컬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현재는 각종 예능, 드라마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JTBC 드라마 ‘닥터 차정숙’에서 매력남 로이킴 역할을 맡아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민 씨는 오는 2025년 7월까지 용인특례시의 각종 행사나 축제에 참여하거나 홍보영상을 통해 용인을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이 시장은 시장 접견실에서 민 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시장은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민우혁 배우를 용인특례시 홍보대사로 모시게 돼 시장으로서 굉장히 기쁘다”며 “한창 활동할 시기라 바쁘고 번거로울 수 있는데 흔쾌히 시 홍보대사를 맡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우혁 배우와 대화를 나눠보니 본인이 살고 있는 용인에 대한 애함심도 정말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용인특례시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말했다.

민 씨는 “이런 제안을 받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용인시 홍보대사를 꼭 해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고, 용인의 공연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가 있었다”며 “좋은 시기에 이런 제안을 받게 돼 기쁘고 시 홍보대사로 활발히 활동하며 용인의 다채로운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홍보대사로는 이번에 위촉된 배우 민우혁 씨를 포함해 가수(그룹 비투비) 서은광 씨,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씨가 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문화재단, '2023 화성시 청년예술단' 공연 시리즈 'HYA플리' 2탄 개최

'올 여름 휴가 여기 어때 플레이리스트'를 주제로 여름 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무대 선사

(재)화성시문화재단은 8월 2일 오후 2시 노작홍사용문학관 산유화극장에서 'HYA플리: 올 여름 휴가 여기 어때 플레이리스트' 공연을 진행한다. 이는 '화성시 청년예술단'의 2023년 첫 기획공연이었던 'HYA플리: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플레이리스트'에 이은 2탄으로 여름휴가와 어울리는 무대를 선보인다.

'HYA'는 화성시 청년예술단(Hwaseong Young Arts)의 약자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와 화성시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예술단 프로젝트 사업이다. 올해 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예술단원은 관현악, 국악, 보컬 총 3팀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기획, 제작해 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연 'HYA플리'는 전통악기와 서양악기가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여름휴가의 설레는 마음을 화성시 청년예술단만의 음악으로 재해석한다. 대중적이고 친숙한 국악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며, 젊은 연주자들의 흥과 열정이 넘치는 시원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지정 좌석에서 관람할 수 있다. 7월 20일(목) 14시부터 시작된 사전예약은 곧바로

전석 매진됐으나,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 당일 예매 되지 않은 표 또는 취소표에 한해 현장에서도 발권이 가능하다.

양시현/기자



고양산업진흥원, 고양 스마트시티 구현에 동참할 '스마트시티즌' 모집

지역 문제에 관심 있는 고양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8월 4일까지 접수 마감

고양산업진흥원(원장 오창희)은 시민들이 고양 스마트시티 구현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문화 확산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고양 스마트시티즌'을 공개 모집한다.

고양특례시와 진흥원은 '시민해결단'을 운영하면서 시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하는 리빙랩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예비 '시민해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고양 스마트시티즌'은 주민자치회, 마을 활동가 등 고양 스마트시티 구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스마트시티즌은 마을지도 만들기, 디자인 씽킹 교육, 디지털 장비 체험,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시민해결단'으로 참여했던 선배들과 함께 리빙랩 실

증 장소를 탐방하고 시민해결단으로 참여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받는 '선배와의 만남'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고양 스마트시티즌'의 활동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이며, 월 2회 이상 온·오프라인 모임에 참석이 가능해야 한다.

선발된 '고양 스마트시티즌'에게는 위촉장과 수료증(전체 활동의 70% 이상 참여 시)을 지급하고, 활동 종료 시 우수 활동자 대상으로 별도의 시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3년 고양 스마트시티즌'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4일까지 모집한다.

한영기/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올 상반기 경기북부 화재 전년 대비 14.3% 감소, 재산피해도 28.9% 줄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2023년 상반기 경기북부 화재 통계 발표



올해 상반기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15.8% 증가했고 주거 시설에서 많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경기북부지역

화재통계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023년 상반기 경기북부지역의 화재건수는 총 1,189건으로 전년 상반기 1,387건보다 14.3% 줄었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도 514억 원으로 전년(724억 원) 대비 28.9% 감소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16명(15.8%)이 증가한

117명(사망 11명, 부상 106명)으로, 이중 절반을 넘는 60명의 사상자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망자 11명 중 8명(72.7%)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장애인 주거지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주거시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당부 된다.

사상자가 발생한 장소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공동주택 33명(28.2%),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 22명(18.8%), 단독주택 27명(23.1%), 차량 12명(10.3%), 음식점 등 생활서비스 8명(6.8%), 임야 등 야외화재 6명(5.1%), 판매업무시설 4명(3.4%) 등 순으로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60대에서 68명(58.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시간대별로는 새벽 시간대인 오전 3~6시 사이에 28명(23.9%)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 원인별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부주의 519건(43.7%), 전기적 요인 351건(29.5%), 기계적 요인 152건(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부주의 화재'의 세부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담배꽂이가 205건(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화원방치 95건(18.3%), 용접 화재 44건(8.5%), 음식물 조리 40건(7.7%)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불씨를 다루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재로 인한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화재 안전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10월까지 경기북부 지역 재난 취약 가구 중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을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고추장 캠페인 등 예방 활동으로 화재는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지만, 주거시설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대피가 곤란한 피난 약자 주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피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경기도 최초로 공동주택 경비실 냉방기 전기료 지원

7,8월 폭염기에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

성남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사기진작 및 폭염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경비실 에어컨 전기료를 폭염기 동안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8월 11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에 방문제출 또는 우편발송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다.

경비실 냉방기 전기료를 지원받으려는 공동주택은 8월 11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에 방문제출 또는 우편발송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다.

파트 등 2곳 아파트단지 2천500만원을 지원하여 냉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냉방기는 2018년부터 6년째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90곳 공동주택 단지 1068개 초소에 5억 6100만원을 들여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된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는 공동주택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폭염기에도 경비원·미화원이 건강하게 근무하는데 시가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성용/기자



수원에서 골라 즐기는 여름방학, 따분할 틈이 없다!

수원시 12곳 물놀이터 8월 말까지 운영, 미술관·박물관 등 시원한 여름나기



학생들이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무심하게 쏟아지던 장맛비가 그치고 다시 무더위가 시작되면 진짜 여름을 즐길 시간이다. 학생들에게는 짧지만 부모에게는 길게 느껴지는 방학기간, 특별한 휴가를 계획하지 않아도 수원에서는 즐길거리가 뿔뿔하다. 가까운 물놀이터부터 다양한 즐길거리와 체험거리를 소개하니 알찬 체험으로 추억을 가득 채워보자.

◇매일 신나는 물놀이로 여름을 시원하게!
뽀뽀 뽀뽀 해도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는 물놀이가 최고다. 수원에서 운영하는 가까운 물놀이터를 잘 활용하면 초극성수기의 봄비는 워터파크를 가지 않고도 충분히 물과 함께 하는 여름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가 무더위를 날려낸 행복한 방학이 따로 없다.

수원시는 총 12곳의 물놀이터와 무료 물놀이장 1곳을 운영한다. 물놀이 시설은 ▲장안구 2곳(생내공원, 일월공원) ▲권선구 5곳(권선공원, 마중공원, 매화공원, 고래의모험, 산들공원) ▲팔달구 1곳(속지공원) ▲영통구 4곳(매여울공원, 방죽공원, 고래등공원, 물봉선공원) 등이 있다. 또 수원시청 앞 울림피크원에는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설치돼 무료로 개방된다. 물은 모두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을 앞두고 진행한 수질점검도 모두 통과했다. 모든 시설은 매주 월요일과 비가 오는 날은 운영하지 않으며, 오전 11시부터 40분 가동하고 20분은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마감 시간은 시설별로 다르니 확인해야 한다. 모두 8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므로 여름방학 기간 중 여러 시설을 이용해보는 특별한 경험도 가능하다.

물에 흠뻑 젖지 않더라도 음악분수, 바닥분수, 벽천분수, 계류형 및 수로형 분수 등 다양한 수경시설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시원하게 여름방학을 보낼 수도 있다. 수경시설을 갖춘 도심 속 휴식처로는 총 30여곳이 기다린다. 장안구는 만석공원과 정자문화공원 바닥분수, 범발정기구리공원 소분수, 대유평공원 계류분수 등을 가동한다. 만석공원 음악분수도 매일 오후 1시와 밤 9시에 25분간 가동하니 시원한 분수를 보며 더위를 식힐 수 있다. 또 권선구에서는 중보들공원을 비롯해 광장공원, 선선푸른공원, 고령공원, 물결어린이공원, 명당어린이공원, 갯따어린이공원, 물향기공원 등에서 바닥분수를 운영한다. 팔달구에는 효원공원, 청소년문화공원, 속지공원, 쌍우물공원 등 4개 공원에서 바닥분수가 뜨거운 여름을 식혀준다. 영통구에서는 매여울공원, 교통공원, 열림공원, 신동수변공원, 미로어린이공원 등에서 바닥분수를 만날 수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들은 필수 에티켓을 준수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동참해야 한다. 물놀이 지역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하지 않아야 하고, 발발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스스로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깨끗한 수경시설 환경 유지를 위해 애당동물출입도 금지된다.

◇도심에서 뜨겁게 즐기는 특별한 하루 휴가
여디를 가도 막히는 극성수기 기간이라면 가까운 곳에서 당일 휴가의 추억을 만드는 것도 좋다. 수원에서 만족스러운 피서를 즐길만한 곳으로는 광고호수공원과 수원수목원을 꼽을 수 있다. 매 계절마다 즐길거리가 풍부한 광고호수공원은 다양한 물놀이시설이 운영되는 여름에도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다. 특히 프라이브루크전망대 앞 신비한물너미는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시원한 한 때를 보낼 수 있는 장소다. 커다랗게 원형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따라 폭포처럼 돌리진 벽천분수와 바닥분수에서 물과 안개가 피어올라

보지만 해도 시원하다.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인 8월 중순까지는 월요일이나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호수를 따라 발목이 잠기는 정도의 대형 바닥분수 거울못, 계류형 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무지개를 만날 수 있는 물보석 바닥분수 등 특별한 시설들을 찾아 다니며 하루를 즐기기 좋다.

지난 5월 말 개장한 수원수목원 두 곳도 특별한 하루를 선물한다. 일월수목원에서 호수와 어우러진 들꽃을 감상하고, 영홍수목원에서 책을 보며 녹음이 우거진 여름을 바라보는 것은 도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다. 무더운 날씨를 피해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에 방문하면 일월수목원과 영홍수목원의 서로 다른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다. 특히 방학기간 중 수원수목원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름방학을 맞은 초·중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수목원 내 식물을 관찰하고 자연물을 이용해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모여라! 수목원 배움터'(7월27일, 8월3일, 8월10일)와 식물을 관찰해 세밀하게 그려보는 '내가 그리는 수원의 식물'(8월1일, 8월8일) 체험이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고 싶다면 미리 수원수목원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날씨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더위를 잊으려면 스포츠가 제격이다.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의 연구지인 수원 여름은 축구와 야구로 이열치열이 가능하다. 축구는 8월5일 수원FC와 수원삼성의 '수원더비'와 8월18일 수원삼성과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원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단 kt wiz 역시 7월 말부터 8월까지 다양한 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원kt위즈파크에서 뜨거운 응원전을 함께 하며 휴가를 즐겨보자.

서늘할 정도로 시원한 아이스링크장도 이용할 수 있다. 광고복합체육센터

아이스링크장이 평일 낮 12시~오후 3시45분, 주말 낮 12시~오후 5시45분(2부로 구분) 자유이용객들에게 개방된다. 어린이 2800원, 청소년 3300원, 성인 4000원의 비용이면 3시간 동안 겨울이 펼쳐진다. 헬멧은 대여할 수 있지만 장갑은 개인적으로 구비하고, 긴 옷을 착용해 부상을 방지하는 것을 권고한다.

◇보고 듣고 읽고 체험하며 익어가는 알찬 여름
무더위를 피해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면 더위도 잡고 학습도 잡는 '일석이조' 휴가다. 수원시립미술관,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고, 수원시립만석전사관, 수원박물관 등이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수원시립미술관은 현재 진행 중인 두 가지 전시와 연계 교육프로그램으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우선 8월20일까지 진행되는 2023 현대미술 기획전 '어떤 Norm(all)'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재인식하는 내용으로 포용과 공존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다. 또 2023 소장품 상설전 '물은 별을 담는다'는 수원시립미술관이 지난 7년간 수집한 수원의 미술과 여성주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수원 출신의 여성 최초의 서양화과 나혜석의 인물화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지, 실감형 AR 및 VR 콘텐츠가 운영되며 체험까지 결합될 수 있다.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고에서는 2023 상반기 기획전 '이야기 유랑선'이 8월6일까지 열린다. 그림 속에 숨은 이야기를 찾아 유랑하며 다양한 형태의 미술 작품 속의 의미를 탐색하고 체험하는 전시다. 7월28일까지는 야광 클레이로 반짝반짝 이야기 행성을 만드는 체험, 8월3~6일 전통국악과 현대미술의 퓨전 창작극 '엄마를 찾아 떠나는 아리의 모험' 음악회 등의 이벤트가 열린다.

수원시립만석전사관은 8월15일부터 관람객 참여형 프로젝트 '별별 수상한'이 시작돼 체험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창의적 예술세계를 체험해볼 수 있다.

수원박물관에는 두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됐다. 7월26일 나무를 소재로 한 한국사 유물 이야기, 8월8~13일에는 한국사 현장학습, 전통놀이 올림픽, 어린이 서화교실 등이 진행되니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보자. 프로그램별로 참여 인원 한정이거나 수원시 박물관 사업소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마다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시원한 곳에서 책을 읽는 북캉스도 여름방학의 묘미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아동권리 보장 앞장선다.. 아동권리옹호관 3명 위촉

법률·복지전문가 아동권리 침해 사례 대응

안양시가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아동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시는 24일 오후 3시 시청 점견실에서 염옥남 변호사(법무법인 우진), 오연주 안양시 가족센터장, 정옥재 굿네이버스 안양지부장 등 3명을 아동권리옹호관으로 위촉했다.

아동권리옹호관은 아동 권리 보호 및 침해 아동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으로,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조사, 구제,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또 안양시 아동권리 정책을 제안하거나 개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임기는 2년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아동권리옹호관 운영,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 12월을 목표로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에 도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권리옹호관 운영을 시작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임병택 시흥시장,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안산, 화성,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겠다" 전력 다짐

임병택 시흥시장이 25일 안산 갈대습지 환경생태관에서 개최된 '시화호권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2024년 시화호 3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 안산, 화성,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와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 협약은 임병택 시장이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정명근 화성시장, K-water 시화사업본부장, 이만근 안산시장을 차례로 만나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각 기관은 추진위원회 및 준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기념사업 추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시흥을 포함한 4개 기관(안산, 화성, K-water)은 올해 안에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의 세부 계획 확정과 사업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4년 30주년 기념사업에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임병택 시장은 평소 환경오염을 극복한 시화호가 지난 미래 먹거리로서의 가치와 RE100, 기후 위기 등 환경 보존적 의제를

풍고 있는 시화호의 시대적 가치를 강조해 왔다.

특히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거듭난 시화호가 환경오염을 극복한 사례로 평가받는 것과 관련해 이를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브랜드화할 것을 호수권역 내 자치단체에 제안하며, 시화호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임 시장은 "2024년은 시화호 방조제 준공 3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다. 시화호의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고 새로운 재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시화호의 물길로 이어진 안산, 화성, 시흥 3개 시와 K-water에 공동으로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관심을 높여, 시화호를 세계적인 환경교육의 명소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참여한 실무 회의를 8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따라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통해 2024년 성공적인 기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신우용/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집중호우 피해지역 점검 동분서주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최종 선정... 지방소멸 대응 성공모델 자신

전국 최초 생물전환 GMP 시설 구축을 통한 그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목포 도심 침수·함평 하천 범람 우려·화순 낙과 현장 잇따라 점검



성·게릴라성 경우는 앞으로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며 "특히 이번 호우로 도심 침수피해가 많았던 만큼,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 이물질 제거와 지하차도 차단시설 작동 점검 등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대책회의에 앞서 김영록 지사는 침수피해를 입은 목포 석현동 삼거리를 방문해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피해지역은 임성천과 삼향천 중상류 구간의 제방고 높이가 낮아 집중호우 시 제방 월류로 도심지 침수가 잦은 곳이다. 2020년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돼 2024년 2월부터 427억 원을 들여 관로 개선 소하천 정비 등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대책회의를 마친 김영록 지사는 곧바로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함평 학교면 원고막교와 산사태 주민 대피현장인 신광면 월암1리를 잇따라 살폈다. 원고막교는 고막원천 수위가 이날 오전 9시 5.9m까지 상승하며 홍수가 6.2m에 근접한 상황에 다다랐다. 이에 긴급히 배수펌프 2대를 작동시키며 수위를 조절했다. 그 결과 오전 11시 현재 5.4m로 안정적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또다시 강한 호우가 예상되므로 임시적으로 양수기 보강 등 조치를 하고, 향후 항구대책을 마련하

라"고 말했다.

함평 신광면은 지난 4월 대형산불로 대동면과 함께 약 682ha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진 곳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월암1리 마을 주민 11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김영록 지사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사방댐 건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피한 마을 주민에게는 "비가 더 올 수 있고 10월까지 이어질 태풍도 안심할 수 없으므로, 대피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수 피해 현장도 찾았다. 김영록 지사는 화순읍 능주면 복숭아 낙과 현장을 찾아 "피해조사를 빠짐없이 실시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농가에서도 경영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조건이므로,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전남지역 복숭아 피해 면적은 174ha로 집계됐으며 주요 피해 발생지역은 화순이다. 전남도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신속한 농작물 피해조사를 실시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지원 계획을 수립해 재해보상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박종배/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4일 오전 호우 대비 재난대책 보고회를 주재한 것을 비롯해 목포 도심 침수 피해지와 함평 하천 범람 우려 현장, 화순 낙과 현장 등을 잇따라 방문해 상황을 살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이틀간 전남 전역에 평균 83.5mm, 지역에 따라 무안 215.3mm, 함평 193.3mm, 목포 189.7mm의 국지성 집중호

우가 내렸다. 기상청은 25일 오전까지 주로 밤과 새벽 사이에 50~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시간당 30mm 내외의 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기습적인 호우로 지하차차장 침수 2건, 주택침수 37건, 상가 침수 10동, 도로 침수 및 범면유실 7개소, 농경지 침수 817ha 등 피해가 발생했다. 김영록 지사는 대책회의에서 "돌발

함평군, 원예작물 장마 후 관리 철저 당부

전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장마로 인한 원예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원예작물은 습해에 약하므로 장마기간 동안 배수로를 잘 정비해 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고추 탄저병 예방을 위해 비가 멈춘 후 방제해야 한다.

노지 작물은 폭우로 경사지의 토양이

유실돼 뿌리가 드러났다면 즉시 흙으로 채워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설 포도는 착색기 이후 신초가 계속 성장하면 주기적으로 순 자르기를 실시하고, 열과(열매터짐)과 일소(햇볕 데임), 병해충 발생 증가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열과 예방을 위해서 장마철 과원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 고온기 적정관수로 토양 수분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한다. 또, 이미 터진 열매는 병원균 포자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빠르게 제거한다.

일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을 빨리 따내 병해 전염원을 차단하고 탄저병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철저히 해야한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여름



장마철 고온다습한 날씨에 대비해 원예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진/기자

남원시, '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남원시는 관내 근로자들에게 쾌적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수요조사를 오는 8월 4일까지 실시한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중소기업 중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 및 편의 시설 사업에 10,000천원,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20,000천원의 보조금을 총 사업비의 60%까지 분야별로 지원한다.

2023년에는 동양칼라강관 외 5개 업체에 LED 교체, 집진시설, 기숙사개선, 작업장 포장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

해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에서는 그동안 기업 간담회, 우편 발송, 직접 방문을 통해 다수의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신청을 받아왔으며, 이번 수요조사 내용은 2024년도 도비 확보를 위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0인 미만의 제조업체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완도해경, "완전 소중해 구명조끼" 체험부스 큰 호응 얻어

절토 사면,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사전점검

완도해양경찰서는 여름 물놀이 성수기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완전 소중해 구명조끼 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안 안전의 날 10주년을 기념하여 연안 안전 점검 주간인 7월 셋째주에 운영됐으며 국민 친화적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개최됐다.

연안 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국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 의거해 지정됐다.

해수욕장 이용객 등 연안 활동자에게 구명조끼 생활화 및 안전수칙 생활화를 위하여 플로깅, 해양안전 그림 그리기 등 재미있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물놀이를 하기 위해 찾아온 많은 가족들이 방문했다.

특히, 이번 체험부스는 생존수영과 구명조끼 착용법을 통해 캠페인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김 군(7세)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구명조끼가 중요한 것도 알고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한테도 알려줄 거예요"라고 말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물놀이 안전의 시작은 구명조끼 착용"이라며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명조끼 입기를 생활화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친화적 해양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영율/기자



나주시-청년회의소, 빗누리초교 앞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가져

교통 사고 예방용 투명우산 2000개 제작,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배부

전라남도 나주시와 나주청년회의소가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펼쳤다.

나주시는 최근 빗누리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에서 청년회의소 회원, 박소준 시의원, 경찰, 학교 임직원,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문화운동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현수막, 어깨띠, 홍보 물품 등을 활용해 '차가 보이면 일단 멈춤', '안전하게 살피고 걷기' 등을 등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홍보했다.

특히 나주시는 안전문화운동 확산의 일환으로 빗길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어린이용 '노랑 투명 우산'을 제작, 초등학교에 배부했다.

우산은 청년회의소에서 직접 관내 학교 24곳을 방문해 1~2학년 학생 2000여명에게 전달하며 힘을 보탤다.

이도경 회장은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문화 확산에 청년회의소가 동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등하굣길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전북도 김관영 도지사,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위한 준비상황 최종점검



집행위원장으로서 잼버리 준비상황 꼼꼼히 살펴

김관영 도지사가 세계 청소년들이 기상을 펼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행사 준비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에 나섰다.

김관영 도지사는(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25일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국과 잼버리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김 지사의 이날 현장점검은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행사의 최종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조직위 관계자, 도 출입기자단들과 함께 잼버리 시설 조성*과 영내·외 프로그램 등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먼저, 상·하수도 및 임시하수처리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등 숙영지원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개영식 및 폐영식과 케이팝(K-POP) 콘서트가 개최될 대집회장, 잼버리병원·미디어센터도 사용될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도 준비를 마쳤으며, 직소천수상과정활동장 등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과정활동장도 대원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또한,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에서 개최된 세계잼버리와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영내·외 프로그램(57종, 174개)을 마련했고 잼버리 영지 인근 14개 시군 지역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영내 프로그램(48종 143개)은 '불피우기', '뗏목만들기' 등 생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화랑어워드(화랑무예, 화랑예절 등), 민속놀이(비석치기, 딱지치기 등) 등 전통체험 프로그램, 드론,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첨단과학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다채롭게 구성했고,

특히, 케이(K)-컬처를 선도하는 케이팝(K-POP) 댄스와 '오징어게임'으로 알려진 '달고나 만들기' 체험 등도 기획해 스카우트 대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할 영외 프로그램(9종 31개)도 기다리고 있다. 고군산군도 섬 트래킹과 부안 하

섬에서의 생존캠프는 스카우트대원들의 인내심과 강인한 체력을 길러주고, 직소천 수상활동을 통해 시원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또, 노을과 함께하는 마실길 하이킹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전주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국립익산박물관 등 전통문화·역사탐방 체험과 김제 금산사와 부안 내소사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 태권도의 성지 무주 태권도원 체험, 전 세계 아이(BTS 팬클럽)들의 성지로 추방받는 전주 '비티에스(BTS)길' 방문은 전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새만금 영지의 밤을 뜨거운 합성으로 채울 케이팝(K-POP) 콘서트도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주요 행사이다. 8월 6일 문화교류의 날에 개최 될 케이팝(K-POP) 콘서트에는 아이브, 스테이씨, 엔믹스 등 최정상급 아이돌 11개 팀이 출연해 전 세계 4만 3천여 명의 스카우트대원들에게 케이팝(K-POP)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우려가 제기된 폭우대책으로는 먼저, 영지 내부 및 외곽 배수로 정비를 완료, 영지 내에 100개의 간이펌프시설을 설치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영지 외곽으로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새만금호 수위도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진입로, 주차장 등 영지 주요장소를 색색으로 포장해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침수피해와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스카우트 전 대원의 텐트 안 바닥면에 팔레트를 설치한다.

만약, 심각한 폭우로 인해 안전이 우려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비상수송버스를 통해 학교, 실내체육관 등 342개의 실내구조소로 긴급대피를 실시한다.

폭우대책으로는 영내 그늘시설 조성(덩굴터널, 7.4km, 그늘섬터 1,720개소)이 완료됐고,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57개의 안개분사시설도 운영된다. 또한 스카우트 대원들의 탈수 예방을 위해 생수(생수, 음료) 및 염분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잼버리 활동이 불가능한 폭염 발생 시에는 지정된 폭염대피소*로 이



동해 휴식을 취하게 할 예정이다. 대다수의 해외 스카우트대원들이 인건급을 통해 입국함에 따라 새만금 영지로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왕복 2,150대의 버스도 참가자 입·출국 시간대별로 분산 수송이 진행된다. 대규모 수송에 따른 교통대책으로는 '교통·수송상황 통제소'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수송상황을 점검하고 주요지점에 통제인원을 배치하는 한편, 경찰의 지원을 받아 안전한 수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7. 25.~8. 15.)에 새만금 세계잼버리 교통대책이 포함되어 주요 이동로에 교통안내 및 휴게소 이용편의를 지원한다. 개영식(8. 2.)과 폐영식(8. 11.), 문화교류의 날(8. 6.) 등 스카우트 대원 전원이 참가하는 대집회장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중인파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참가국 스카우트 캠프별 관람구획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입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시 병목현상 방지 통제선 설치, 비상통로를 사전 확보하고 행사상황 발생 시 조기 분산을 위한 행사장 내 완충 공간 확보, 무대·관람석 간 바리케이트 및 객석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주요지점에 안전요원과 경찰이 주요 장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세계잼버리 전 기간 동안 위기상황별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영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잼버리경찰서, 잼버리 소방서와 실시간 상황공유로 각종

사고, 화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대응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도 적극 대응한다. 일일 176명의 의료 인력이 상주하는 잼버리병원과 5개의 협력병원을 통해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나눠 스카우트대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아울러, 전 세계 스카우트대원의 안전한 식사를 위해 식음료안전대책 본부를 구성해 식자재부터 조리시설·환경 등 위생관련 전 과정을 수시로 점검해 식중독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다.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도지사는 행사 준비상황 최종보고를 받고 "최근 언론 등에서 우려를 제기해온 폭염·폭우, 감염병 등 우려사항을 말끔히 해소하고 빈틈없는 행사준비를 위해 마지막까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조직위에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안전대책을 세우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일주일 후인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한류문화 확산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출/기자

강진군,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쾌거

강진군 포함 4개 시군 선정...총사업비 330억 원 확보

강진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천년 문화 강진, 청년 글로벌 플랫폼'이 최종 선정돼, 도비 180억 원(총 사업비 330억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시군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 정책을 제안하도록 해, 가장 우수한 프로젝트를 제시한 시군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는 획기적인 제도로 지난 12월, 김영록 도지사가 처음 도입했고 첫 주인공으로 강진군과 순천시, 진도군, 신안군이 낙점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 공모사업 규모상 가장 크며, 시군이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정책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발상으로 여겨져 왔다.

강진군은 출사표를 던진 전체 20개 시군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면과 현장 평가를 거쳐, 순천시, 진도군, 신안군과 함께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강진군과 순천시는 올해, 진도군과 신안군은 2024년에 각각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군은 확보된 총사업비 330억 원(도비 180억 원)을 투입해, 폐교된 성화대학 리모델링해 4차산업혁명 핵심 거점 기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및 실감 콘텐츠 기업과 연계해 청년창업 지원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최첨단 기술 교육을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에 54억 원, 영화, CF 촬영용 복합 스튜디오 구축에 57억 원, 지역 기반의 미디어아트 구축에 53억 원,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 구축 및 창업 교육에 36억 원, 강진의 한정식과 사찰음식 세계화에 22억 원, 예비 귀촌인과 창업가 등 동시 1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레지던스 구축에 60억 원, 4차산업혁명지원센터 구축에 41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지역의 명운이 달려있다'라고 강조한 강진원 강진군수의 진두지휘 아래, 오롯하게 공무원과 용역팀의 피나는 노력으로 일군 값진 결실로 평가 받는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7개월간 군수실에서 수차례 회의를 갖고,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수소문한 수도권 전문가를 수시로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등,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계획을 도출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역소멸위기가 높은 강진인 균형발전의 책임지임을 대외적으로 알린 차영수 도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동원회 수소문한 수도권 전문가를 수시로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등,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계획을 도출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역소멸위기가 높은 강진인 균형발전의 책임지임을 대외적으로 알린 차영수 도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동원회 수소문한 수도권 전문가를 수시로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등,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계획을 도출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물거은 노력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최초로 사업 구상을 시작한 이래, 폐교된 성화대를 활용해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 건설을 계획하고, (주)이엠펜, (주)은글플레이스와 총 120억 원의 투자협약을 지난 5월에 체결한 바 있다.

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미디어 아트의 거장 이이남 작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업기획의 완성도와 단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왔다.

폐교된 성화대학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어디든 가고 누구든 만나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실제로 투자유치팀은 사무실 규모보다 관리 출장이 더 많기로 유명하다.

성화대학은 1997년 개교 당시 320명으로 출발했지만, 2007년 1,236명까지 증원되다가 2012년 폐교돼, 현재 홀몰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성화대가 위치한 성진면의 인구가 개교 당시 약 4,50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 현재는 2,784명으로 약 40%가 줄어들었다.

성진면은 월출산 국립공원이 품고 있고 백운동 원림과 강진다원, 무위사가 자리한 아름다운 고장으로, 강진 무위사 IC에서 지적인 강진의 관문이며 영암, 해남과도 가까운 교통의 요지이다.

사업의 담당 부서인 전략사업추진단의 김영빈 단장은 "강진원 군수님의 진두지휘 아래, 처음에는 지역의 경쟁력을 내다보는 군수님의 실력을 직원들이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리더를 믿고 인내하고 노력한 결과 선정돼, 공무원으로서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통해, 성화대 폐교로 생기를 잃은 성진면민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과거 성진면이 강진읍보다 더 큰 활력을 가졌던 전성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은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프로젝트로 인구 유출과 지역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지역이 청년을 세우고, 청년이 지역을 바꾸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며 "도의 대표선수라는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또 "우리를 모두의 실력과 피땀 흘린 노력으로 얻어낸 이번 성과를 통해 '하면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며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 성공에 이어, 앞으로도 대형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해, 강진을 전남 서남부권 중심지로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덧붙혔다.

추원호/기자

진도홍주, 올해 남도 우리술 품평회 '우수상' 수상



진도홍주 40°가 '2023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도 우리술 품평회는 전라남도가 주최, (사)전남전통주생산자협회 주관으로 전남지역 주조장에서 국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현재 시판 중인 주류업체들이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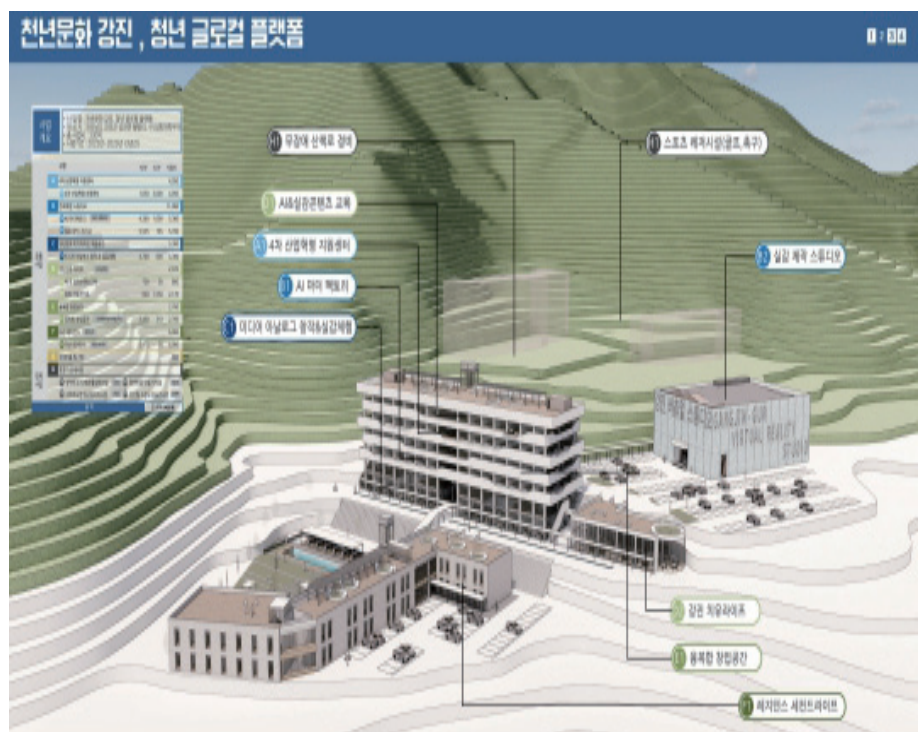
진도홍주는 기타주류부문에서 전문심사위원과 국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품미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진도홍주는 고려 말기에 처음 빚기 시작해 조선시대에 최고의 술로 인정받은 이후 한국의 전통주로 자리잡아 진도에서 전승·보존되고 있다.

홍주의 주재료인 붉은 빛을 내는 지초는 시코닌과 플라토올리고당이 다량 함유, ▲항비만, 항암, 항당뇨 ▲콜레스테롤 저하 ▲면역력 강화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고, 진도홍주는 높은 도수에도 숙취가 거의 없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진도대대로의 진도홍주는 지난 2019년도 벨기에 몽드셀렉션 국제주류품평회에서도 금상을 수상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진도홍주의 대중화와 다양한 판로 확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윤경호/기자

화순군,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신청

화순군은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15일간 '2023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를 모집한다.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은 귀농농가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농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농촌지역 전일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업경력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2018.1.1. 이후 전입 농가), 만 65세 이하(1957.1.1. 이후 출생자)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다.

지원내용은 농산물 장기 저장 및 유통개선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귀농농가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소형농기계, 취약지역 작기 물관리를 위한 중형관정 개발 등 총 3개 사업이다.

지원 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로 보조금 지원 한도 초과 시 자부담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 정착이 확실치 대되는 귀농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화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

군 관계자는 "신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이 이뤄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북도,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공모선정, 경주 중점 육성

2023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최종 선정, 총사업비 490억 원 확보

경북도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3년도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에 '경주 나정고운모래해변'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경주 나정고운모래해변 77,820㎡(육역 8,801㎡, 해역 69,019㎡)에 총사업비 490억 원(국비 245, 도비 73.5억, 시비 171.5억)을 투입해 '신라오션킹덤'을 주제로 △해양레저 지원센터 △사계절레저체험센터 △오염물처리 △고라섬물장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 △나정수상레저체험장 △레저위터로드 △만파식적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지역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아 사계절 주.야간 체험형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북의 내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종합관광산업 규모를 키워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사업

은 증가하는 해양레저 관광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거점을 해양관광 7개 권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관련 시설을 조성해 내·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한국의 해양레저관광명소로 육성하는 것으로, 현재 5개 권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공모를 실시해 경주를 비롯해 총 4개 지역에서 신청했다.

해양관광, 시설,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서면, 대면평가,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해 최종 2개소를 선정했으며, 그 중 경주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의 선정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용역 단계부터 오랜 기간 걸쳐 철저히 함께 준비한 결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서면·대면 평가에서 경주시장이 직접 발표하고, 7월 현장평가에서는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해 다른 지역보다 사업

에 높은 의지를 보인 것이 선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중권 경북도 한동해 지역본부장은 "경주 나정고운모래해변을 국내 최고

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 특별점검 실시

24일, 조재구 남구청장,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대응 철저" 거듭 당부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선천대로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급경사지 등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24일 구청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남구청장은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집중호우 및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대책기간 내 현장 점검 및 비상근무 등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하고 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4개소, 산사태취약지역 2개소, 급경사지·옹벽·석축 등 12개소,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3개소 등 관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모두 마쳤다.

특히, 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인 24일 조재구 구청장이 관련 부서와 함께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및 급경사지를 직접 현장 점검했고, 호우 상황 해제 시까지 안전한 남구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

시 온도 저감 및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도시온도 저감을 위하여 도로 살수차량 운행 및 쿨링포그, 분수 등 수경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자율방재단 및 어르신돌보미 등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폭염 대비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공원, 관광지 및 재래시장 등에 쿨링포그를 추가 설치하고, 앞산 카페거리 일원 보도에 차열성포장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재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현재까지 집중호우 기간 중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없이 재난 관리를 실시한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다가올 무더위에도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남구 만들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부산시, 수산물 상생할인 직거래장터 개최

7.27.~28. 2일간 10:00~19:00 시청 녹음광장에서 개최

부산에서 준비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열린다.

부산시는 오는 27일과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청 녹음광장에서 '수산물 상생할인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를 앞두고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부산의 우수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산물 직거래장터 ▲수산물 시식회 ▲수산물 안전성 홍보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산물 직거래장터에서는 고등어, 삼치, 봉장어, 아귀, 미역, 다시마, 김, 오징어 등 부산의 우수 수산물을 시중가보다 10~20% 낮은 가격으로 할인 판매한다.

부산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체 등에서 20곳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장터를 찾은 시민에게 1만 원

이상 구매 시 2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해 시민들이 더욱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산물 시식회는 27일 오후 4시 녹음광장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며, 안전하고 싱싱한 부산 수산물을 선착순 200명에 한해 무료로 맛볼 수 있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부산 소재 해양 관련 기관장 등도 이 자리에 참석해 직접 부산 수산물을 시식하며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물 안전성 홍보를 위해 '깨끗한 우리바다, 안전한 우리수산물', '꼼꼼 검사 촘촘 감시' 등을 표어로 하는 부산 수산물 안심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포토존 인증 사진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해 참석 시민에게 선착순으로 보냉백 등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수산물 상

생할인 직거래장터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좋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부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6월에도 '2023 부산푸드필름페스타' 행사와 연계한 '수산특별전'과 '수산물 회 시식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부산 수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한 바 있다..

송중진/기자



부산시 수산물 상생할인 직거래장터 & 수산물시식회

부산시청 뒷편 녹음광장

연일: 7.27(목)~28(금) 10:00~19:00, 2일간

수산물시식회: 7월 27일(목) 오후 4시~5시 (선착순 200명)

장터: 7월 27(목)~28(금) 10:00~19:00

문의: 070-4465-7491 |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청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안동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방문 '계절근로자 초청 프로그램 협력 논의'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풍사이삭 인타랏 차관, 주한 라오스 대사관 아룬콘 부롱마봉 부대사 등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24일 안동시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의 안동시 방문은 작년 12월 권기창 안동시장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체결을 위해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를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 및 관리하면서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장 및 관내 6개 지역농협의 조합장들이 함께 참석하여 논의의 실효성을 도왔다.

풍사이삭 인타랏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차관은 "지난해 안동시와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의 계절근로자 MOU체결을 계기로 안동시의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

가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이번 안동시 방문을 통해 양국 도시 간 우호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권기창 안동시장은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의 안동시 방문을 환영하며 라오스 계절근로자의 도입으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통해 안동시와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의 우호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안동시는 올해 상하반기 163명의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관내 58개 농가에 배치하여 농촌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새마을회, 피서지 이동문고 개소

청송군 주왕산에 피서객들을 위한 이동문고가 운영된다.

새마을문고 청송군지부는 7월 24일 주왕산국립공원 야영장내에서 여름철 피서지 이동문고 부스 운영에 들어갔다.

피서지이동문고는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성숙한 국민의식 함양과 건전한 피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7월 24일부터 8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동문고에는 2,000여권의 책이 구비되어 있으며, 청송군민 뿐만 아니라 피서객들도 도서대출대장에 이름과 연락처, 도서의 제

목을 기재하면 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운영기간 중 "알뜰도서관시장, 환경정화활동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즐거운 부대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송순희 회장은 "피서지 이동문고가 아름다운 추억과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며 "더불어 많은 분들께서 마음 편히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건전한 피서 문화 정착과 독서생활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 실시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투명방울벽 또는 유리창 충돌로 인해 폐사하는 조류의 수가 1일 2만여 마리, 연간 800여만 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양군은 충돌 및 추락으로 폐사하는 야생조류 피해를 저감하고자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공원사업소는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조사에서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긴꼬리딱새를 비롯한 26종 62개체의 야생조류가 확인된 만큼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사업의 주요한 사업 대상

지이다.

환경보전과에서는 '2022년 건축물·투명방울벽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 생태공원사업소 온실 및 본관 뒤편 휴게실까지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을 완료했다.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는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10cm미만의 공간을 통과하지 않으려는 조류의 특성을 이용한 장치로, 일정 간격의 점이 찍힌 무늬로 인쇄된 스티커이다.

한편,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도 기관

협력 사업으로 조류서식 및 폐사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류충돌 저감에 동참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우리는 인간의 편의와 건물의 미관을 위해 설치되어 왔으나, 수많은 야생조류의 희생을 초래했다. 이번 사업으로 야생조류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사람과 야생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영양군이 앞장서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황촌 살아보기' 프로그램 진행

이달 31일까지 총 20팀 모집, 프로그램은 8월 5일~9월 30일 운영

경주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게스트하우스 행복꿈자리에서 '황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황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팀당 2박 3일 간 총 20팀(2~4인)을 모집해 펼쳐진다.

참가자에게는 '행복꿈자리' 2박 3일 숙박권, 마을부역 '황촌정지간' 조식 무료 식사권, 행복황촌 프로그램 체험권, 마을 해설사와 함께 하는 골목길투어 체험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행복황촌의 다양한 추억을 SNS에 업로드하며 행복황촌의 마을호텔과 지역 관광의 정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이달 31일까지 신청기간을 거쳐 SNS 홍보에 능숙한 인플루언서 위주로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은 행복황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블로그 구글폼(QR 코드 스캔)으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경주 행복황촌'으로 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이선영 행복황촌 협동조합 팀장은 "황촌 살아보기는 행복황촌의 골목길 투어와 함께 경주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며 "주민들이 운영하는 민박집을 활용한 마을호텔 사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경주의 숨은 매력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진 도시재생사업부장은 "행복황촌에는 건기 좋은 예쁜 골목과 곳곳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마을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맛있는 음식과 막걸

리 만들기 체험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며 "황촌 살아보기 체험을 통해 골목길을 중심으로 하는 경주의 새로운 로컬관광 문화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태용/기자



경북도, 호우피해 복구장병 '생활편의'적극지원

군 복구인력 지원 3종 패키지 제공... 적극행정 서비스 실시

경북도는 호우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 군 장병들을 위해 이른바 '3종 지원패키지(숙박+식사+세탁서비스)'를 해당 시군과 협력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구현장에 투입된 군 장병들은 7월 16일부터 문경 STX리조트,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 송실대 통일리더십연수원 등에서 숙박하고 있다.

경북도와 시군은 장병들에게 양질의 식사와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숙박과 기니마다 식사와 간식 등을 실시간 사진으로 점검하는 등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

세탁지원은 숙소와 계약된 세탁업체를 통해 전투복, 속옷, 양말을 세탁 건조해 다음날 배송함으로써 기존 세탁차와는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 장병들이 복구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공급업체와 협력해 군 복구인력이 현장에서 사용하게 될 장화, 방

수용장갑,삼 등을 사전에 배송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인 자루, 손수레 등은 당일 복구현장 등으로 보내주고 있다.

이외에도 빵, 이온음료, 에너지바, 컵과일 등 장병들의 간식도 매일 수량을 파악해 농협 경북지부를 통해 현장으로 배송하고 있다.

경북도의 행정지원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금껏 많은 복구 현장에 파견되어 일했지만 이렇게 신속하고 배려 깊은 지원은 처음"이라며 말했다.

이영석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군 장병에게 최고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경북도는 장병들이 숙박과 식사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이재민들의 일상복귀가 하루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덕 청년들, 모두 모여 신나게 놀아보아요!

청년문화네트워크킹파티 '깔롱쌔롱' 참여자 모집 7월26일까지



기획됐다.

작년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인기를 모았던 '깔롱쌔롱'은 올해도 조별 문화 활동 프로젝트와 계절별 특별 활동 등 청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 더욱 알차게 꾸며질 예정이다. 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소모임 활동과 공모전 등 새로운 활동도 마련돼 있다.

'깔롱쌔롱'의 대상은 영덕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이며, 평소 영덕의 청년들과 어울려 친해지고 싶은 분, 영덕에서 새로운 문화 활동을 함께 즐기고 싶은 분, 영덕의 생활이 지루했던 분, '깔롱쌔롱'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7월 26일까지 연장됐고 신청 방식은 구글폼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덕문화관광재단 담당자는 "올해도 '깔롱쌔롱'은 청년들이 모여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다"며 "다양한 직업, 각기 다른 경험과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모여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영덕에 활기를 불어넣을 청년네트워크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장문화/기자

경남도, 경북 문경시·예천군 호우 피해지역 물품 지원

7월 25일, 현장 복구 파견 장병 위해 2천만 원 상당 간식 지원



경상남도는 7월 25일 경북 문경시 및 예천군을 방문하여 호우 피해지역의 현장 복구에 힘쓰고 있는 군 장병에게 간식 등 필요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부터 시작된 집중 호우로 충북, 충남, 경북, 전북 등 지역에 인명 피해 및 농작물 소실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7개 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장 긴급상황회의를 통해 피해 지역별 시급하게 필요한 자원들을 파악했다.

현재, 경북 피해지역인 문경시, 예천군에는 군 장병이 긴급 파견되어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피해복구에 매진하고 있으나 파견 장병들의 간식 및 물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도 자원봉사센터는 인근 지역인 경북지역의 피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도 대표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1, 2, 3 사업장과 함께 즉석밥, 컵라면, 음료, 빵, 에너지바 등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도는 재난지역 피해 복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필요시 자원봉사 인력, 방차와 물품 지원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희숙 도 자원봉사센터장은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현장을 조속히 복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재현/기자

울진군, 장마 이후 농작물 병해충 관리로 고품질 쌀 생산

울진군은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 우려가 높아져 농작물 관리와 병해충 방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한 달 간의 기온이 평년보다 1.2°C 높고, 강수량은 67.8mm 더 많은 가운데 울진 지역에도 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흑명나방 등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고 있으나,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서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적기 병해충 관리가 이루어져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수량 감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농작물 상태를 살펴보고 비가 그친 틈을 활용해 전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벼의 경우 벼대 아래쪽을 살펴보고 벼멸구나 잎집마름병이 보이면 전용 약제로 초기에 방제하고, 출수를 앞둔 조생종 벼에 잎도열병이 발생했다면 이삭도열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최근 흑명나방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벼 잎이 세로로 말리고 잎끝이 하얗게 변하면 유충을 확인한 후 곧바로 방제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발작물인 고추의 탄저병, 역병, 담배나방은 장마 후에 확산하기 쉬우므로 병이 든 식물체는 즉시 제거하고 전용 약제로 방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울진군에서는 지난 7월 15일부

터 관내 1,640ha 논지에 무인항공을 활용한 벼 병해충 1차 공동방제를 시작했으며, 8월 중순경 2차 공동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인항공을 활용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농업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고 마을 단위의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 2012년부터 울진군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황중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장마 이후 농작물 관리를 충실히 하여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고, 병해충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대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영주시, '대한광복단 10년, 독립전쟁을 이끈다' 전시회 개최

28일까지 국회서...광복단 활동·단원들의 생애 조명 등 자료와 사진 전시

영주시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대한광복단 10년, 독립전쟁을 이끈다'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개막식은 25일 11시에 열린다.

(사)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회장 정윤선)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시회는 대한광복단의 10년사를 기록화하고, 나라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고귀한 대한광복단 단원들을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대한광복단은' 1913년 정월 경북 풍기(영주시)에서 독립운동가 소몽 채기중(1873~1921) 선생이 중심이 돼 조직한 국내 최초의 무장 독립운동단체이다. 의병 장교 출신의 인물들을 중

심으로 유림, 계몽운동가 등 여러 계층의 인물들이 모여 군대 양성, 군자금 모집, 일본 관리 및 친일파 처단 등을 투쟁 목표로 삼았다.

1913년 창단부터 대한광복단 10년간의 활동을 시기별로 나누어, 대한광복단 단원 및 채기중 선생의 생애 조명, 주요 활동, 관련 재판 기록 등 관련 자료와 사진 등을 전시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무단 통치가 극심했던 1910년대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한 대한광복단의 업적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며 "대한광복단의 활동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상운면, 수해복구 성금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 잇달아

상운면에서는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상운면은 주택침수, 농경지 피해, 기반 공공시설 및 사유 시설 침수·파손 등 다양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상운초등학교 40회 졸업생인 김영근 ㈜착한낙지 대표는 "이번 수해로 인해 고향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도움을 주고 싶다"며 상운면에 수해복구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영근 ㈜착한낙지 대표 외에도 상운행정약국에서 100만 원, 봉화종합중기에서 1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주민들의 수해복구 성금이 이어지고 있다.

상운면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모아진 수해복구 성금을 피해 주택 복구, 생계비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창희 상운면장은 "김영근 대표 등 성금을 전달해 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성금을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수재민 긴급안심키트 지원

이재혁 사장, "공사가 보유한 역량을 수해복구 활동에 집중,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 의사 밝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난 26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안심키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안심키트에는 여름이불과 구급함, 전복죽 등이 들어가 있으며 총 300개, 2천만 원 상당이다.

공사 임직원 20여명과 자원봉사자가 합심하여 만든 이번 안심키트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예천군에 27일 즉시 배부될 예정이다. 현재 이재민 임시거처인 경북도립대, 별방리 마을회관 2개소에 150여개의 구호키트가 우선 지원되며, 잔여분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봉화 등의 지역에 균등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재혁 사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구호키트를 제작하였다"며, "공사가 보유한 역량을 수해복구 활동에 집중하여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한울본부, 2023년도 건강한 여름나기 영양식 전달

복지시설/기관에 닭백숙 밀키트 680세트 및 수박 110개 등 1천9백만 원 상당 농축산물 전달

한울본부(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 이하 한울본부)는 26일 울진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영양식 나눔 행사'를 가지고 닭백숙 및 수박을 전달했다.

한울본부는 장애인, 아동, 한부모 및 노인복지시설 10곳과 울진군가족센터 등 5개 복지기관에 울진군에서 생산한 닭백숙 밀키트 680세트와 수박 110개 등 1천9백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전병호 울진군노인요양원장은 "한울본부가 울진군민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어 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철호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은 "덕분에 올해도 무더위를 무사히 잘 극복하며 지낼 수 있겠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손봉순 대외협력처장은 "이번 후원 물품은 울진에서 생산한 농축산물로 지역민의 건강한 여름나기와 울진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라며, "이번 행사가 무더위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한울본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동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울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웹툰 프로토타입 공모전' 개최

7.26.~8.31. 부산 지역 창작자 대상 20부작 '웹툰 프로토타입 공모전' 개최



부산시는 부산웹툰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케이티(KT)스토리위즈, 콘텐츠허브와 함께 '2023 부산웹툰컴퍼블라이스 오리지널 20부작 웹툰 프로토타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웹툰, 웹소설 플랫폼 기업(KT스토리위즈) 및 콘텐츠 전문 대행사(콘텐츠헤라)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산 지역 웹툰 산업을 활성화

하고 재능있는 지역 거점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는 오늘(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완성된 원고와 아닌 콘트의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토타입은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험용으로 미리 만들어보는 시제품을 의미하지만, 웹툰에서는 제작 초기과정인 콘트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공모전도 웹툰의 프로토타입이라 할 수 있는 콘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작 중 최종 선정된 총 10개 작품에는 총상금 3천만 원이 지급되며, 이 중 추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일부 작품은 미니시리즈 20부작으로 사전 제작되어 스토리위즈의 웹툰 플랫폼 블라이스에 연재된다.

자세한 공모전 관련 정보 및 모집요강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단순 수상만이 아닌 창작지원-사전제작-플랫폼 연계까지 이어지는 창작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건강하고 우수한 작품 제작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창작물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웹툰 프로토타입 공모전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플랫폼기업, 유통기업 간의 시너지가 더욱 공고히 될 것"이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부산웹툰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재능 있는 작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 웹툰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중진/기자

영양군-영양교육지원청, 2023년도 제1회 영양군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영양군은 지난 24일 영양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영양군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협의회는 오도창 영양군수, 김유희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영양군 인제육성장학회 임원, 영양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의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영양군은 현재 차상위계층 등 약 15%의 학생들에게 무상 지원되고 있는 우유 급식을 모든 관내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본예산에 약 7천여만 원의 군비를 추가적으로 편성하기로 협의했으며,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방학기간 급식비를 약 6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 여름방학 중식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영양미래교육지구 운영,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 매입, 폐교재산 효율적 활용 등의 주요 안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역의 청소년미래를 주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군과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명품 교육도시 영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영양군과 영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10년 영양군교육행정협의회를 설립한 이래 매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왔다.

윤근수/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1주년, 도민과 현장중심 의정활동 펼쳐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 "앞으로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 각오 밝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7월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문화환경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을 필두로 9명의 위원들이 문화, 환경, 체육 분야에 있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등 2개 실국과 1개 직속기관/4개의 사업소와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 6개 출자·출연기관을 소관하고 있고, 경북의 문화예술/관광진흥, 생활체육지원, 환경보전, 산림자원개발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조례안 33, 예결산안 18, 동의안 4건 등 58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현지확인 등을 통해 도정 전반의 추진실태를 명확 파악했고, 이를 통해 경북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실성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경북의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광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또한,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육인의 생활안정을 통한 체육활동 증진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문화, 관광 분야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의 통합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문화환경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사업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회성 행사예산 등 31개 사업에 대해서 53억 9천8백만 원 감액했고, 또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6개 사업에 대해서 3억 6천1백만 원 감액하는 등 방만한 예산편성을 차단하여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산이 적

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15개 기관에 대해 2022주요업무 추진상황/예산집행 현황, 사업의 적정성/효율성 여부, 업무 추진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시정.처리 30, 건의.촉구 51, 제도개선 1건 등 총 82건을 지적하는 등 행정 전반을 살피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지난해와 2023년에 시행된 경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후보자 인사검증시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수익구조가 단편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경북관광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부진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경상북도 공기업 및 산하기관 의장을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로 임용하기 위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은 "지난 1년간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북의 문화,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북 살리기에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힘써 왔다."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1년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울릉군-한동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 교육프로그램 눈길

한동대학교는 지난 24일부터 26일 3일간 울릉군 소재 초등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로봇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로봇교육은 울릉군과 한동대학교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울릉군 글로벌 그린 U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울릉군의 초등학생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AI, 로보틱스, 인공지능을 주제로, 내가 만드는 AI로봇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직접 로봇을 제어해보고 로봇의 자율주행을 코딩 등을 통해 설계해보는 등 다양한 체험 협력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기계제어공학부 김재호 교수는 "한동대와 울릉군의 긴밀한 협력으로 인해 울릉 소재 학생들에게 진로 및 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며 "이를 통해 울릉 지역사회 및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하권 교수는 "초등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AI 디지털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미래 진로를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동대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 경북도, 한동대학교는 지난 달 지역특화형 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산업수요 혁신 인재 양성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강제/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2020년 수해 경험, 올해 ‘쓰악’ 됐다”

주간 간부회의서 선제 대응 격려...“시민 제도 및 협조 노력은 부족”



박경귀 아산시장은 24일 “지난 2020년 수해 피해를 교훈 삼아 올해는 대비를 철저히 한 것 같다”며 집중호우 기간을 큰 피해 없이 넘긴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7월 셋째 주 주간 간부회의에서 “지난 한 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

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아산은 큰 피해가 없이 넘겼다. 수시로 회의를 열고 대응한 부시장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단기적으로 비가 집중해서 내리는 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수해 대책의 핵심은 담수와 배수량 관리에 달려있다”며 “2020년

에는 농어촌공사와 협조체계가 미흡해 집중호우 기간 송악저수지 물도 집중방류 해 피해가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사전에 지역 저수지 담수량을 70% 이하로 낮추고, 호우 기간에도 저수지의 물을 서서히 배출했다. 산림 속 습도와 배수로도 정비해 물길을 만들었고, 한 건의 산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힘을 실어줬다.

조일교 부시장 역시 “상교호 수위를 15% 정도 낮춰서 곡교천 수위가 높아졌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었다. 인근 농경지 침수가 있었지만, 큰 피해를 막았다”며 “경찰, 소방서, 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운영한 단독방(SNS 오픈 채팅)이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주효했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이 기간 발생한 두 건의 사망 사고는 개선 과제를 남겼다. A씨는 14일 저녁 봉재저수지 물넘이 인근에서 물고기를 잡다 급류에 휩쓸렸고, B씨는 16일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뒤 곡교천 인근에서 실종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물리적인 수해 대응은 잘했지만, 시민들에 대한 계도와 협조를 얻는 노력은 부족했다”며 “봉재

저수지 물넘이에는 사고 다음 날에도 외국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안전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곡교천도 수해 위험기간에는 천변 접근을 통제하는 순찰 요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직원들의 비상근무를 초과근무 수당으로 보상하는데, 수당에 한계가 있다 보니 보상이 미흡하다. 초과근무 수당과 별도로 보상할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은 계속되는 비 소식과 관련 산단 기업 오·폐수 무단 방류 예방 및 점검, 문화재 호우 피해 전수 조사 및 긴급복수, 이순신종합운동장 잔디 구장 배수시설 재정비 등을 지시했다.

한편 아산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이어졌던 지난 13일부터 18일 오전 7시까지 누적 평균 강우량 268.4mm를 기록했으며, 제방 및 마을 도로 유실 등 공공시설 13건과 축사와 주택 침수 등 사유 시설 4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23일과 24일 새벽에는 아산시에 평균 62.4mm의 비가 내렸으며, 특별한 피해는 없었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호/기자

전남도, 발신 알 수 없는 국제우편물 열지 말고 신고하세요

전남도, 울산 호흡곤란 피해 이후 의심신고 잇따라... 안전 안내문자 발송

전남도는 최근 울산에서 국제우편물을 개봉했다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전남에서도 의심신고가 잇따르며 따라 발신을 알 수 없는 국제우편물은 열지 말고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 29분에 울산 동구 복지시설에서 대만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우편물을 개봉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국제우편물이 배달됐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에서도 발신을 알 수 없어 테러가 의심된다는 국제우편물 신고 건수가 22

일 오전 9시 현재까지 목포, 순천, 무안 등 12개 시군 총 29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14건은 경찰이 인계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 감식할 예정이다. 나머지 15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1일 오후 8시 48분, 22일 새벽 0시, 2회에 걸쳐 의심스런 우편물은 열지 말고 신고를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문자를 보냈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본인이 외국에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을 받았을 절대 열어보지 말고 112나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종배/기자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023년 상반기 1,707건의 불법 사채 거래 종결 지원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 404명 상담, 1,707건의 불법사채 불법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 지원

50대 법인 대표인 피해자 A씨는 기술로 본정으로 몇 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건강보 험료, 세금 미납 등으로 사업자금 용동이 어려워지자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42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원금의 2배인 약 6억 3천만 원가량을 상환했으나 채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찾아오겠다는 협박과 욕설, 채무를 알려줬다는 협박으로 한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상황

올해 3월경, A씨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 금융피해지원팀을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지원팀에서는 A씨의 전체 채무를 확인해 채무액을 계산했으며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사실을 적시하고 추 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신청과 경찰 신고접수를 도와 A씨는 악몽 같 았던 불법 사금융의 늪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 404명을

상담하고 1,707건의 불법 사채(피해액 12 억 원)에 대한 불법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 을 지원했다.

피해지원팀에서는 ▲피해상담(채무액 계산, 불법 추심 현황 파악, 대응 방안 안내 등) ▲채무협상(조정) 지원 ▲형사적·법적 절차 지원 ▲관계기관 연계 지원 ▲사후 상담을 통한 복지정책,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서비스는 대응 방 안 안내 및 관계기관 연계에 그치지 않고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를 채권자에게 적시하고 불법 추심 중단, 법정 금리 준수 및 거래 종결을 요구하는 등 피해 상황에 직접 개입해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또한 불법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력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지원 결과, 피해 유형의 대부분은 1 인 기준, 5건 이하 사채를 사용했으며 평균 361만 원의 대출금 차용, 168만 원의 피해금이 발생했다. 성별·연령별 측면에선 전

체 피해자의 45%가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 남성에게 해당하고, 동일 연령대 여성은 17% 수준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일부는 불법추심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새로운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해 불법 거래에 이용되는 등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과 회복이아말로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이자, 간막이 행정을 타파한 사업”이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 경찰단, 경기도 남·북부경찰청과 함께 불법 사금융의 악몽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상/기자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방법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및 신고센터
☎ 031-267-9396

불법 사채 해방 일기

☎ 031-267-9396

“음주운전자도 잡고 실종자도 찾고”... 경주시CCTV관제센터 제 역할 ‘톡톡’

“음주운전 의심차량 발견했습니다. 경 찰은 신속한 출동 당부드립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8시경 경주시 외동읍 일대 모니터를 훑어보던 모니터링 요원이 음주 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발견했다. 모니터링 요원은 매뉴얼대로 그 즉시 112 상황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 찰은 해당 차량을 추적해 60대 운전자를 검거했다.

음주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 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8% 로 확인됐다.

경주시CCTV통합관제센터는 올해 상반 기만 28건의 음주 운전을 찾아 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 월까지 CCTV통합관제센터에 등록된 사 건·사고는 56건이다.

특히 CCTV통합관제센터는 사건·사고 현장 영상은 물론이고 치매 노인 찾기와 청소년 비행 보호와 예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경찰 등 유관기관의 요청 으로 총 2095건의 CCTV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시CCTV통합관제센터가 시민 안전 지킴이로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 이다.

현재 경주시역 곳곳에 3530대의 CCTV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며, 모니터링 요원 24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 하고 있다고 경주시는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50여대의 CCTV를 신 규로 설치해 실시간 범인 검거 등 사회 안 전망 구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 해 경찰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 다”며 “경주시CCTV통합관제센터가 시민 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타용/기자

NH 농협

함께하는 100년 농협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을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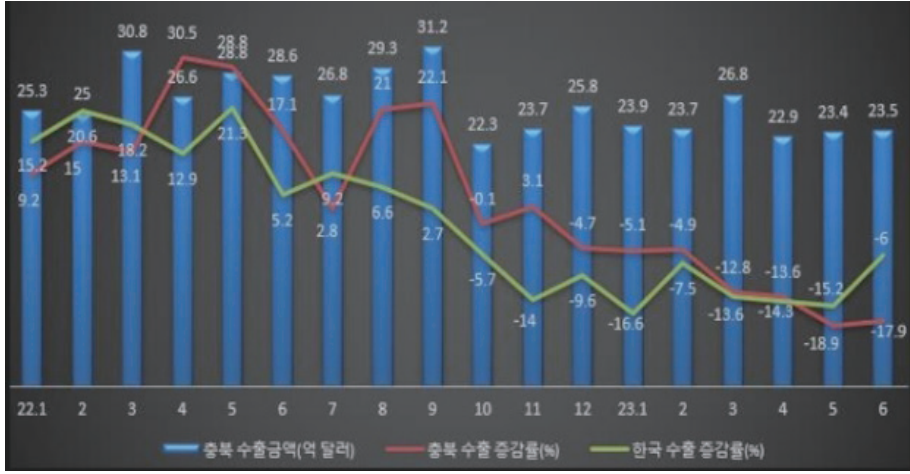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충북도, 연속 7개월 수출 감소로 상반기 수출 144억 달러 마감

전년 대비 수출 12.5% 감소, 이차전지·양극재 등 수출 증가



충청북도의 상반기 수출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가격 하락이라는 어려운 수출 환경속에서 전년 대비 12.5% 감소한 144억 달러로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한 결과로서 같은 기간 한국 수출은 12.4% 감소했다.

의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수출이 15.3% 감소하고, 그동안 충북 수출을 뒷받침하던 바이오, 편광필름, 대용량고속저장장치(SSD), 필름류, 구리 등의 주요 제품 수출이 감소했다.

양극재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36%, 82% 증가하고 미국으로의 태양광 모듈 수출이 68% 증가하면서 충북 수출을 이끌었으나 반도체 등 수출 감소분을 상쇄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양극재 포함 이차전지' 수출이 증가하고 그 비중도 27%로 증가함으로써 반도체 수출을 능가하는 제품으로 자리매김 한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 시장별로 보면 충북의 최대 수출시장 이던 중화권 수출이 19.6% 감소했으나 미국과 유럽이 양극재와 태양광 모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떠오르며 전년 대비 각각 21%와 0.6% 증가하고 수출 비중도 38%로 증가하면서 시장 집중도를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는 하반기 수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시장가격 하락 폭이 크고(디램의 경우 전년 4분기 대비 38% 하락), 국내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재고가 3월말 기준

49조원 정도였기 때문에 소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등 단기간에 회복될 것이 불투명하고 점진적인 턴어라운드 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기관이 세계 경제 성장을 하향 전망하고 한국 수출도 상반기보다 감소 폭은 감소하겠지만 하반기에도 감소를 예상되고 있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충북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및 양극재 포함 이차전지의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안정적인 성장을 하면서 수출을 뒷받침하는 충북의 히트수출제품(전선, 이차전지 조립·활성화 공정 장비, 자동 차단기, 펌프, 접착제, 크레인, 열처리 등) 수출이 계속 증가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출 잠재기업 육성을 위한 현장방문을 추진하는 등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화합의 힘으로 다 함께 위기 극복해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아산시연합회 가족화합대회 개최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아산시연합회 주관으로 이순신빙상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후계농업경영인 화합대회'에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독려했다. 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이기에 아산시의회 부의장,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 유관기관 및 농업단체 관계자, 후계농업경영인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농업 발전 유공자에게 표창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화합 한마당 행사로 읍면동 체육행사와 노래자랑 등을 진행했다. 특히 연합회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200여만 원을 성금으로 전달했다. 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이겨낸 경험이 있다. 오늘은 잠시 시름을 잊고 단합하는 시간을 가진 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의 다른 농업인도 함께 도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박 시장은 "농업·농촌의 위기에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여러분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을 개선하고 저탄소 농업기술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순 연합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들이 농업정보를 교환하고 화합과 우정을 다져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농업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아산시연합회는 12개 읍·면회 82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농업인의 소득과 권익향상을 위한 대변자 역할을 나서고 있다. 김원호/기자

강원도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획득, '체외진단 지원 센터'개소

강원특별자치도는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내에 '체외진단 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지난 2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체외진단 지원 센터'는 기술장벽이 높아 상용화 성공 시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저비용-고효율 산업분야인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상용화 지원을 위해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며 구축이 추진됐다. 그동안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개발과 생산-공정 과정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이 의무화되며, 높아진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을 다수의 벤처기업이 충족하기 힘들었고, 이는 산업화 병목 구간으로 늘 존재해 왔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선제적으로 체외진단 제품 생산장비 도입 등 제조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지난 6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국내 벤처기업의 혁신 기술 상용화 지원이 가능해졌다. 2022년부터는 인공지능(AI) 랩온어칩 기술개발을 통한 고도화 연구개발(R&D)을 추진 중이며, 최근 산업부의 '체외진단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되며, 강원특별자치도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체외진단 지원센터 구축을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체외진단 산업화 지원 기반을 집약된 국가적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체외진단 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혁신적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충남도, “집중호우 도민 피해 전액” 특별 지원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키로 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집중호우 특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두 차례 건의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정부에서도 과거와 달리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상 복귀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구제적으로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아래,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3600만 원, 반파 1800만 원, 침수 300만 원 등이다. 또 현행 제도 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 지원 규모는 피해액의 35% 안팎에 불과하고,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이다. 그러나 도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키로 했다. 출하를 앞둔 멜론·수박 등 시설작물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비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 지원한다. 가족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1ha,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읍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중 786건(89.4%)을 완료했다. 일시 대피자 2,088세대 3,194명 중 1,896세대 2,839명이 귀가를 하고, 미귀가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

련 중이다. 앞으로는 민간 장비와 군 병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집중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항구적인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라며 △댐 긴급 복구 지원 시 사전 협의를 위한 기구 마련 △금강 지천 정비 △금강 분류·지천, 하구연 배수갑문 추가 설치 및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국 21개 지자체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첨단 산업에서 각축전을 벌여 총 7개 특화단지를 지정했는데, 디스플레이는 충남이 유일하게 지정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지사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 부총리, 당 등에 강하게 요청해 지난해 11월 디스플레이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됐고, 지난 3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첨단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폭 상향돼 기업의 신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탕정 디스플레이 시티 등 천안-아산 10개 산단을 연계한 축구장 2000개 규모(1412만㎡)에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첨단전략기술 개발과 조기 사업화를 위해 전략기술연구센터 구축 및 테스트 실증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으로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기반시설 설치, 예타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인력 양성 등과 함께 세제 혜택까지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확보, 충남은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3258억 원을 투입해 3만 명이 넘는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32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해 내겠다"라고 밝혔다. 충남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SDC)는 '디스플레이 산업 안보 및 세계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 조성은 목표로 1412만㎡의 부지에 2027년까지 3258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전략기술 공동 연구센터 지정·운영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지원 △전략기술 협력 연구개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전략기술 패스트 실증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기술 연구회 △디스플레이 육성 펀드 등 신규 사업 7개와 10개의 기존·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원주시, 시민 편익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



원주시는 25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원강수 원주시장과 시의원,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 증진 위원회, 운수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시 대중교통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관내 운수업체 현황 분석, 노선구조의 개선 방향 제시, 원주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준운송원가(안) 제시 등 시내버스가 직면한 문제점과 개선안,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다루었다. 현재 원주시 시내버스는 운행손실분의 일정 부분을 원주시가 지원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수업체의 경영악화와 노선권으로 인한 운송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어 운영체계와 노선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시는 이번 최종보고회 이후 두 번째 단계로 준공영제 및 노선개편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시내버스의 운영 안정성 강화를 위한 운영 체계와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선체계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내버스의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 체계 및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며 시민 편익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태백시, '2023 지질과학 캠프' 개최

태백시는 '2023 지질과학 캠프'가 관내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에서 오는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에서 인정한 공원이다.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생대 퇴적암류를 보여주는 장소로, 하천 지형 및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하여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인정받아 태백시에는 구분소를 포함하여 5개소의 지질명소가 분포하고 있다. 이번 '2023 지질과학 캠프'는 수억 년 전 지구의 역사를 찾아 떠나는 프로그램으로, 관내에 소재한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인 검룡소와 구분소의 전기고생대 지층 및 화석지형을 지질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지질탐사 도구를 활용하여 화석 및 지질 현상을 탐사할 예정이

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질과학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태백의 주요 지질명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배우고 체험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3 지질과학 캠프』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초등학교 4학년~6학년 및 중·고등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총 7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참가 신청은 태백시와 박물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참가비 전액(1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되어 지역 내 소비활동을 유도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근/기자



2023 지질과학 캠프 참가자 모집

기간: 2023. 8. 11(금) - 8. 12(토) 까지

참가신청: 이메일 및 전화신청
 • 태백시청 홈페이지 「시민게시판 및 일반공지사항」 참고
 •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참여마당」 섹션서 참고

모집인원: 70명 (08월 15일 - 35명, 16일 - 35명)

참가자격: 전국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및 중·고등학생, 단체

문의: 캠프운영 대행사 GN기비(033-553-7579)

충북,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

국내유일 수소 연료전지 생산거점, 국내최저 가격 수소생산 시설 방문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25일 이육헌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과 함께 충주 '현대모비스'와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를 방문하여 충북의 선도적인 수소 경제육성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일정에 앞서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충주시 목벌동을 방문하여 피해상황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충북도의 지원과 충주시도 재난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을 약속하고 산업시설 점검에 나섰다.

충주시는 수소산업 현황 브리핑 현장에서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등 대표사업의 추진현황과 앵커기업인 현대모비스와 관련 소부장 기업들의 집적화 현황 그리고 '특장차 수소 파워팩 기술지원센터',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센터' 등 지원시설의 구축계획을 설명하며, 중부내륙권 최고의 청정수소

도시 충주에 대한 산업부와 충북도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방문한 국내유일의 차량용 연료전지 생산거점인 '현대모비스'에서는 생산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충주 전통화공장은 수소모빌리티의 심장이자 시작품의 출발지"라며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확대를 위해서 R&D 단계에서 수소용품 인증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수소인프라 및 연료전지 관련 기업이 집적된 충주 기업도시가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이를 통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국내 최저 가격(7,700원/kg)으로 수소를 생산·공급하고 있는 '충주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를 방문하여 청정수소를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충주시 모델에 대한 우수성을 확인하고 전국 확산 및 해외수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수소산업은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를 잇는 차세대 중부경제를 책임질 핵심산업"이라며 "앞으로도 수소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소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여 충북이 수소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롯데벤처스와 지역 유망 콘텐츠기업에 펀드 투자 성공!

김해시·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2023년 결성에 참여한 '스타트업 엔젤 브릿지 투자조합'을 통해 지역 유망 콘텐츠기업인 부에노컴퍼니가 투자를 받게 됐다. 이번 투자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조합의 첫 김해시 투자이며 롯데벤처스가 함께 투자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엔젤브릿지 투자조합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창업자, 기술력 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주목적 투자대상이다. 진흥원은 지역의 유망 초기창업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펀드 조성에 참여했으며 펀드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남벤처투자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다.

금번 2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부에노컴퍼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서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의 시장성 검증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투자 유치를 위해 작년 말부터 진흥원과 꾸준히 논의를 이어온 결과 결실을 맺었다.

부에노컴퍼니는 마트 연계 모바일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그로켓' 앱을 통해 네이버, 구글에서 찾

기 힘든 동네마트 할인정보를 찾을 수 있고, 점주에게는 수익증대를 위한 새로운 홍보·판매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그로켓은 마트와 편의점 할인정보를 제공하고 마트 휴무일 알림으로 보다 쉽게 장을 볼 수 있고, 마트 점주에게는 앱을 통한 할인 전단 제작과 마트 SNS개설, 통합 고객관리 시스템(CRM), 카카오톡 단체 전송으로 운영을 도와주는 혁신적인 앱이다. 또한 부에노컴퍼니는 최근 구글에서 주관하는 2023 창구 프로그램에서 7년 이하 앱 개발사 400여팀 중 높은 경쟁을 뚫고 TOP 10에 선정되며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진흥원 박승호 원장은 "투자 유치는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진흥원이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민간 투자생태계에서 투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8월 30일에는 제3회 김해형 Pre-IR 경진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31일부터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광용/기자

방위사업청, 신종 화학무기 사용 흔적 찾아내 테러 증거 확보하고 대응능력 높인다

국방과학연구소, '노비츠크' 사용 유무 검증하는 '신종화학작용제 검증기술' 국내 독자 개발 성공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박종승)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종화학작용제 검증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신종화학작용제를 이용한 전사 또는 테러 발생 시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오염 지역에서 수집된 시료로부터 신종화학작용제 '노비츠크(Novichok)'의 사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다.

4세대 화학작용제로 불리는 노비츠크는 현존하는 화학무기체계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신종화학작용제로, 2018년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 테러 사건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각 국가들이 정치적인 이슈로 자국이 보유한 신종화학작용제 대응능력 공개를 꺼리고 있어,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ADD는 정확한 오염지역 및 제독범위 설정에 필요한 신종화학작용제의 거동특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거동특성 데이터베이스는 신종화학작용제가 다양한 자연환경조건(풍속, 온도, 습도 등)에 따라 얼마만큼 휘발이 되고 남아있는지에 대한 정보다. 또한, ADD는 오염된 지역에서 수집되는 환경시료(토양, 물, 콘크리트 등) 분석에 필요한 시료 전처리 기술과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분석법을

개발해 시료 내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신종화학작용제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확보했다.

오염지역에서 수집된 환경시료의 경우 주변 환경조건에 따라 시료가 유실될 수 있으나,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수집된 생체시료(혈액, 소변)의 경우 최대 수개월까지 시료 내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인자(바이오마커)를 검출할 수 있다. ADD는 분연구를 통해 생체시료 전처리 및 극미량 표식인자 분석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ADD가 개발한 시료 전처리 및 극미량 분석기술은 세계 최초의 기술 개발을 인정받아 SCI논문 8편, 특허 2건, 소프트웨어 5건 등의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신종화학작용제 검증기술'은 화학무기 테러 발생 시 신종화학무기 사용 증거확보를 위한 원천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화학방 탐지·보호/제독·해독 등 신종화학작용제 통합대응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반기술로 활용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광수/기자



농촌진흥청, 인공지능 기반 병해충 영상진단기술 활성화 협력 기반 마련

25일, 농촌진흥청-(사)한국식물병리학회-(사)한국응용곤충학회 업무협약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사)한국식물병리학회(회장 전용철), (사)한국응용곤충학회(회장 박종균)와 25일 '병해충 인공지능(AI) 영상진단기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농촌진흥청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인 병해충 인공지능 영상진단기술은 영상정보를 바탕으로 병해충을 빠르게 진단하는 디지털 기술이다.

병해충 인공지능 영상진단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병해충 종류별로 적게는 수천에서 수만 장의 영상정보가 필요하다. 영상정보를 많이 확보할수록 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에 병해충 관련 분야 학계, 산업체 등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수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사)한국식물병리학회, (사)한국응용곤충학회와 병해충 분류진단 연구를 활성화한다. 두 학회는 병해충 연구에 협력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인공지능 기반 영상진단용 빅데이터 구축 경진대회

를 개최하고, 두 학회의 학술대회 기간에 병해충 분류·진단 관련 특별 분과(세션)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양한 협업을 통해 병해충 인공지능 영상진단기술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간이 협력해 인공지능 기반 병해충 영상진단기술을 활성화하고, 이 기술이 농업 현장에 빠르게 보급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회색빛 일상에 푸르른 심포...

떠.나.자!

예천_회룡포

좋아요 79,848개
yecheon #육지안의섬 #뽕봉다리 #트레킹

예천_곤충생태원

좋아요 89,719개
yecheon #모노레일 #다양한체험 #놀이동산인줄

예천_강물화전시관

좋아요 69,752개
yecheon #삼강주막근처 #아이와함께 #키즈카페인줄

예천_삼강주막

좋아요 82,134개
yecheon #삼강주막 #마지막주막 #주모한상

농촌도시예천

경북교육청, '다시, 독립의 기억을 걷다!'

고등학생 국내 독립운동길 순례단 출정식 가져

경북교육청은 25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고등학생 국내 독립운동길 순례단 출정식'을 가졌다.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운영되는 순례단은 경북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직접 답사하며 나라사랑 정신과 평화·통일 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북교육청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 후손 사제동행 나라사랑 동아리 회원 및 역사에 관심이 많고 나라사랑 정신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고등학생 60명을 공모로 선발해 진행한다.

25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진행된 출정식은 독립운동가 소개, 학생대표 선서,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했으며, 이육사 선생의 외동딸 이육비 여사는 '청포도'시를 낭송하고, 경북독립운동가 권기일, 김대락 선생 후손인 권대용, 김세훈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 선언문을 낭독하며 경북지역 순국선열을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러 경북 독립운동의 성지 내마마을을 걸으며 나라사랑의 첫걸음을 내딛고 추풍령역, 급수탑,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탐방하며 독립운동사 전반에 걸친 소양을 쌓았다.

한편 지난 24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 임소한 순례단은 전시관 관람 및 신흥무관학교를 체험하고 단원 간의 간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오는 26일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현장 강의를 들으며 역사를 배우고 평화 의식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27일은 3·1공원 및 독립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탐방하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는 김희곤 관장의 '경북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의'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경북 독립의 위상을 일깨운다.

28일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하고, 석주 이상룡 선생의 묘소에 헌화·참배하는 것으로 긴

여정을 마무리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해외독립운동순례길이 코로나19로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국내 독립운동길 순례단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순례단 활동을 통해 경북인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나라사랑의 길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태백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건립 협약 체결

태백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난 25일 '학교복합시설(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사업을 위한 업무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교복합시설 사업 기본 추진 방향 설정과 상호 협력관계 조성 등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태백교육도서관과 태백시평생학습관을 연계해 학생과 지역주민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복합시설인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을 위해 2023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교복합시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학교복합시설이 없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0개 사업을 공모·선정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지원 등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태백시가 강원도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강원도교육청은 사업 공모 신청서를 8월 1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통해 남녀노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교육시설을 건립하여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 감소 완화에 기여하겠다"라며, "향후 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태백 꿈탄탄 이음터'가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경북교육청, 자신감 듬뿍! 희망 쭉쭉! 해피캠프 운영

8개 기초학력저점지원센터 주관 자신감 및 학습동기 향상 캠프 운영

경북교육청은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의 자존감 향상 및 사회성 회복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8개의 기초학력저점지원센터 주관 '해피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피캠프는 주말과 방학을 활용해 학습지원대상학생들과 희망하는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 개발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과 다양한 도전·성취프로그램을 통해 만족지연 능력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서비스'와 함께 기초학력저점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인 이번 캠프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캠프 △ 학생들이 좋아하는 물놀이 체험 △토요 만들기 △진로 및 과학 체험 등 지역 및 센터의 특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한다.

8개 거점지원센터 중 3개 센터는 행사를 완료했으며, 캠프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고 내년에도 참석을 희망했다. 8월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후 협의회를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경기초학력저점지원센터 해피캠프에

참여한 학부모는 "가족이 함께 캠핑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더욱 가까워지고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기초학력저점지원센터는 학습코칭단에 대한 월별 사례회의를 통해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추가로 신청받아 지원한다.

아울러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초학력의 부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사회성·가정 지원 등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부진 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남교육청 - 전교조전남지부 2023 상반기 정책협의회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25일 전라남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정책협의회 개최식'을 가졌다.

전남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근 발생한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 교권보호 강화와 학교 현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동반자 관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노사 양측은 이와 함께 △ 교사 행정업무 경감 △ 유치원교육 활성화 △ 특수교육 활성화 △ 보건·급식교육 개선 △ 근무여건 개선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52개 항목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남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통과 협력, 상생의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바랐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권 보호를 강화하고, 교사가 행복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노·사가 성실히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사항을 이행하여 시대적 과제인 전남교육

대전환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상식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이번 협의회가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줄이고, 서로 상생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를 통해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많은 교사들이 용기를 얻고,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2022 우수축산물브랜드' 선정



봉화 한약우는 우수혈통으로 선별한 한우에 자연의 기를 머금은 한약재를 첨가한 사료로 사육한 명품 한우고기입니다. 한우의 부드러운 감칠맛과 함께 각종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한 참살이 건강식품으로, 청정지역 봉화군에서 무항균, 무항생제, 무농약의 생산조건으로 품질인증 받은 국내 고급브랜드 한우입니다.

봉화 한약우 프라자



임병택 시흥시장, "거북섬 활성화할 축제 준비 '총력' 다하겠다"

시흥시는 25일 시청 다솔방에서 관계 공무원, 외부 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하반기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축제와 행사 내용을 공유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번 공유 회의는 거북섬 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지난 상반기에 개최된 각종 축제와 행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각 부서에서 계획한 축제 및 행사에 관한 내용을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머리를 맞췄다.

임병택 시흥시장의 제안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시흥시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담당관, 관광과장 등 거북섬 축제와 행사를 담당하는 각 부서장과 (주)웨이브파크, 거북섬발전위원회 등 거북섬 내 협력 기관, 축제 전문가인 한길오 대표가 함께해 힘을 실었다.

회의는 2023년 하반기에 계획된 2023 거북섬 해양축제, 거북섬 하와이안 페스티벌 등 거북섬 내 축제 등에 관한 각 부서장의 보고와 임병택 시장이 직접 주재한 각 축제의 연계 및 협력 방

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임병택 시장은 회의에서 "긴 장마가 끝나는 8월부터 피서객을 포함한 많은 해양레저 관광객이 거북섬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에 서해선 연장운행을 시작으로 거북섬 분동, 시내버스 노선 확장(33번, 33-1번) 등 많은 기반 시설이 개선되고 처음 열리는 축제인 만큼, 거북섬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임 시장은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행사 준비에 모두가 합심하고,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3월 시작한 거북섬 활성화 전담팀(TF)을 중심으로 하반기 축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2024년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신우용/기자



대전 0시 축제, 준비는 끝났다! 8월 11일 팡파르

대전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장우 시장과 축제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대전 0시 축제' 행사 운영 대행 구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시간여행 축제'를 테마로 장진만 축제 총감독이 행사장 구성과 프로그램 설명한 뒤, 위원들이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대전 0시 축제는 오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 동안,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1km) 중앙로와 인근 원도심 상권에서 개최된다. 매일 오후 2시에 시작해 자정(0시)까지 진행되며, 행사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민선 8기 대전시장으로 취임한 이장우 시장은 "축제가 단순히 먹고 노는 행사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객을 유입하고, 도시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한다"라는 축제 철학을 제시하며 '대전 0시 축제'를 핵심 공약사업으로 정한 바 있다.

대전시는 축제 행사장을 대전의 과거·현재·미래를 만날 수 있는 존(zone)으로 나눠, 각 구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출할 계획이다.

과거존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전의 모습을 관객이 참여하는 이머시브(immersive)공연의 형태로 만나볼 수 있다. 양키시장-양복점-성심당-음악다방 등을 소재로 관람객과 전문연기자가 어우러져 평소 접해보지 못한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존에서는 글로벌 K-컬처를 선도할 대전 문화예술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지역 예술인과 대학생이 펼치는 길거리 문화예술 공연과 국내 최정상급 뮤지션이 출연하는 K-POP 콘서트, 한여름 밤의 축제 열기를 뜨겁게 달궈줄 EDM 파티가 매일 진행된다.

미래존은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을 영상과 빛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몰입형 실감 미디어아트를 통해 나노반도체·우주항공·바이오헬스·국방산업 등 대전의 4대 핵심산업을 알리고, 건물 외벽을 활용해 첨단 3D 홀로그램 영상을 표출하는 미디어 파사드 쇼를 통해 한여름 밤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게 된다. 또한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인 꿈틀이는 아간조형물로 제작하여 방문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또한, 행사장 전체를 관통하는 퍼레이드가 3일 동안 펼쳐진다.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참여형 퍼레이드가 광복절인 8월 15일에 펼쳐지고, 시간여행 축제를 소재로 한 시민 참여형 퍼레이드는 개막일인 8월 11일과 17일에 진행된다.

추억의 대중가요 '대전부르스'는 대전 0시 축제의 모태다. 댄스 버전으로 리메이크하여 행사 주제가로 사용되며, 대전부르스 전국 창작가요제도 열린다. 주제가는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춤 동작이 가미된 플래시몹 댄스를 통해 함께 즐길 수 있다.

행사장 인근 지하상가-오정에너지거리 등 주변 상권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은 어디서나 문화적 감동을 해소할 수 있다.

대전 0시 축제의 주된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원도심 상권을 이용한 구매표객은 매일 밤 11시부터 0시까지 진행되는 경품추첨 이벤트를 통해 당첨의 행운을 누릴 수도 있다.

축제장에서 먹거리가 빠질 수 없다. 원도심 상인들만 참여해 판매하는 다양한 먹거리 존도 운영된다. 맥주파티, 야시장, 가락국을 소재로 한 누들대천 등을 통해 대전의 참맛을 느끼게 된다.

축제에 어떤 가수들이 출연하는지는 모두 이의 관심사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국내 최정상급 뮤지션들이 매일 무대에 올라 축제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군다.

개막일인 8월 11일에는 실력파 발라드 가수 김범수가 축제의 서막을 장식한다. 12일에는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 그룹 '에이핑크'와 프로미스나인, 훅(HOOK), 김중국이, 13일에는 보컬 퍼포먼스의 제왕 '울랄라세션'이 출연한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 0시 축제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부담도 되지만, 그 기대가 희망과 설렘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단순히 먹고 노는 행사가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전의 재미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2023 변산비치파티 준비상황 현장점검

변산해수욕장,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603번지 일원

부안군 권익현 부안군수는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3일간 변산해수욕장에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재미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25일 2023 변산비치파티 준비상황을 현장점검 했다.

2023 변산비치파티는 참여형 비치댄스 경연을 대표프로그램으로 하여 변산해수욕장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풍성한 놀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탐방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변산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변산해수욕장에 위치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건너편에서 열리는 2023 부안 워터페스티벌은 지난 8월 개장하여 다음달 20일까지 44일간 운영되며, 워터슬라이드, 에어바운스, 풀장, 놀이기구 등의 각종 놀거리와 지역주민이 직접 판매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회인 셈이다.

변산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2023 부안 워터페스티벌과 2023 변산비치파티에서 먹거리 장터를 준비하고 있는 한 지역주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는 해수욕과 찌릿한 물놀이 및 탐방객과 댄스경

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고 자랑하며 휴가철 관광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변산해수욕장을 찾는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즐거움과 볼거리 마련 차원에서 워터플라이보드 및 열기구 활용한 다채로운 행사가 운영되어 탐방객들의 경이로운 탄성과 동심을 자극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본 행사가 새만금잼버리대회의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높이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안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경남도, "골프장과 피서지 등 바가지 요금 막는다"



경남도가 상반기 물가안정대책 합동점검반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통시장 내 350개소, 골프장 39개소, 착한가격업소 20개소 등 도내 409개소에 대해 경남도 관련 부서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제 등은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분야에서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내 골프장 39개소 중 19개 업체에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위반이 드러나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

골프장 내에서 판매하는 짜장면 등 음식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가격 안정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시장상인회 관리하에 자율적인 가격 책정과 원산지 표시가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가격변동 품목인 수산물 등의 가격표시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시군과 협의하여 수정 기재할 수 있는 가격표시판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

이다.

청결한 위생관리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에는 현장점검 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업소당 48만 원 정도의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여 합리적 가격을 책정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물가안정 우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외식업 중앙회 경남지회 등 관련 협회와 소비자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간담회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사천시 남일대해수욕장 상가 번영회에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동일한 가격표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한 공동 메뉴판 제작 사례 등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하고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8월 31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지도 점검을 추진한다.

중점 점검대상 시군은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이며, 나머지 시군도 협의하여 합동 및 자체 물가점검을 병행

하여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수욕장, 축제장 등 피서지에서 숙박업, 요식업, 피서용품 등 피서지 주요품목 가격표시 이행 여부 기존 점검대상인 전통시장, 착한가격업소, 골프장 등의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병행 점검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등의 경우,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군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하여, △ 피서지(해수욕장, 축제장 등) 개인서비스업소의 피서용품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피서지 내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추진 홍보 △ 바가지요금 대비 외식비 안정 및 물가시책 협조 요청(지역 관광지 내 상인회 등 관련단체 면담) 등을 추진한다.

도는 앞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종합상황실 운영하고, 도, 시군 물가안정회의를 통하여 도와 시군 간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대응한 경상남도만의 물가안정 관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요인 발생 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상률과 시기 등을 최대한 조정하고,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이벤트 추진 등 홍보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와의 지속적인 실무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물가동향 파악 등 협력도 지속해 나간다.

노영식 도 경제기업국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관계기관-단체 면담을 통해 자율적 요금 동결 분위기 조성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특히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등 현장 중심의 물가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동월대비 2.4%로 2%대에 진입하면서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장재현/기자

영양 들머리-보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에 쫓기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M

들머리-보내기.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강물을 이어가는 스트리틀랜드!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배공원, 축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물마을, 주실마을, 김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방한보호공원, 반딧불이천연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공룡발자국전시관, 용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태박물관, 본재수석이생화전시관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 제2023-064호

『태풍 힌남로(호암천) 재해복구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안)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태풍 힌남로(호암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태풍 힌남로(호암천) 재해복구사업	경상북도지사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안동리, 호암리 일원	2023년 ~ 2025년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소재지	편입지번
경주시 문무대왕면 안동리	599, 600, 601, 1133, 1142, 5-2, 5-6, 1130-1, 147-5, 147-6, 148-1, 148-2, 149-5, 149-6, 149-7, 149-8, 150-3, 150-5, 150-7, 150-8, 150-9, 151-1, 152-2, 152-4, 152-7, 168-2, 285-3, 286-1, 286-3, 286-4, 287-7, 602-1, 602-2, 603-1, 604-1, 619-16, 619-21, 619-22, 623-3, 623-4, 623-6, 623-7, 624-1, 625-1, 626-1, 644-1, 644-3, 646-1, 647-5, 647-6, 647-7, 산47, 산47-1
경주시 문무대왕면 호암리	15, 159, 173, 194, 245, 297, 368, 378, 379, 429, 500, 503, 504, 505, 507, 515, 516, 518, 519, 522, 523, 525, 535, 538, 543, 51-1, 52-1, 59-3, 60-1, 61-7, 61-8, 62-4, 66-1, 66-2, 66-3, 18-1, 0-20, 118-1, 131-2, 143-4, 143-5, 143-6, 153-1, 154-1, 157-3, 158-1, 160-3, 160-7, 172-3, 172-4, 172-5, 174-1, 193-1, 193-3, 195-2, 195-4, 196-5, 197-1, 197-3, 197-8, 197-9, 198-1, 198-2, 198-3, 199-5, 201-2, 201-4, 201-5, 201-8, 202-1, 202-2, 202-3, 202-4, 202-5, 203-1, 203-2, 203-3, 204-3, 217-2, 217-3, 218-1, 218-3, 218-4, 244-3, 244-4, 296-5, 296-6, 307-10, 307-4, 307-6, 326-1, 327-3, 380-1, 381-1, 381-2, 384-2, 384-3, 388-2, 388-3, 388-5, 398-2, 399-7, 400-7, 400-8, 499-1, 499-4, 530-1, 산48, 산54, 산71, 산91-2

※ 위 토지상에 소재한 건축물 등 지장물 및 권리관계 일체

3. 보상대상

-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안동리, 호암리 일원 토지 164필지 69,074㎡ 관련 권리일체와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2023.07.28.(금) ~ 2023.08.11.(금)(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국·공휴일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경주시청 건설과 하천팀 : ☎054)779-6407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경주시청)]
- 경상북도개발공사 동남권보상사무소: ☎054)286-1231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59번길 2]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보상시기 : 2023. 11월 이후(사업추진일정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보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및 지급방법

-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하게 되며,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면적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등)수용재결 ⇒ 공탁

7. 보상업무 수탁기관 안내

가. 근 거 : 「토지보상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나. 수탁자 : 경상북도개발공사[보상전문기관]

다.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본사)

라. 연 락 처 : 054-650-3091~2

8. 기타사항

- 가. 본 신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 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나. 토지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다. 태풍 힌남로(호암천) 재해복구사업 사업구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라.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께서는 주소 및 소유권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경상북도개발공사**로 연락바랍니다.
-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개발공사 보상사업처(☎ 054-650-3091~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 07. 28.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위 보상업무수탁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